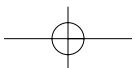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경남작가

2012년 · 제21호

경남작가회의



경남작가

책 머리에

· 4

지역 작가회의 초대시

| 광주 전남 초대시 |

김미승 접속

김 완 시인과 느티나무 외 1편

김규성 부영바위

고영서 첫 농사 외 1편

최기종 다시 전사 외 1편

안오일 변쩍, 칼날을 보았다

조성국 겨울 숲 외 1편

박두규 딸

조진태 2012 더 메이 ;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외 1편 · 8

특집

양 곡 경남문학 발전방향

하아무 경남 문학인물 탐방 14 정공채 시인편

박종국 법정 최후 진술문

회원시

김덕우 나무들 외 1편

김명우 봄 외 1편

김미연 개구리 외 1편

김성우 찻술질 외 1편

김영곤 순가락 외 1편

김유철 강정 구름비 외 1편

김 진 마주하다 외 1편

2012

회원시

김진희 하늘을 뽕뽕 날다 외 1편
 노창재 다시, 찔레 외 1편
 박구경 꽃 피는 목욕탕 외 1편
 박덕선 파리지옥 외 1편
 박보근 뚝 지는 사람 외 1편
 박영기 얼음 대접 외 1편
 박현숙 풍경 외 1편
 양 곡 새벽녘 잠에서 깨어 외 1편
 예시원 도시의 밤 외 1편
 오삼록 간벌 외 1편
 원종태 밀밭의 역사 외 1편
 이경숙 카를 요한의 봄날*에 칠하다 외 1편
 이월춘 낙동리 강물 외 1편
 이한걸 천장크레인 운전공 외 1편
 장인숙 하루살이 외 1편
 정기석 무덤 한 채 외 1편
 정선호 전설의 고향 외 1편
 조 민 언중유골(言中有骨) 외 1편
 한선미 일출 외 1편
 한수남 등허리 외 1편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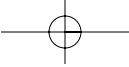
박래녀 고사리, 참 묘한 식물이다.

단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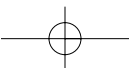
민기 폐달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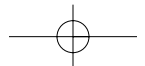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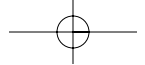
청소년 마당

제11회 경남 청소년 문학대상



■ 책 머리에





김진희 시집

굿바이, 겨울



시집이 집이라면 저는 이제 막,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얻은 셈이겠지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껏 울 수 있고 떠들고 노래할 수도 있는 집이 있으니까요.

이런 누추한 저의 집을 다녀가시고 깃들여주신

정다운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 지은이

새미

특집

- 경남문학의 발전 방향에 관한 하나의 모색
—양 곡
- 경남 문학인물 탐방 14 정공채 시인편
—하아무
- 최후 진술문
—박종국

특집

경남문학의 발전 방향에 관한 하나의 모색

양 곡

문학을 흔히 삶의 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삶이 어느 순간 힘들고 아플지라도 거기서 나타나는 문학은 아름다울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삶이 한 없이 즐겁고 기쁠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문학이 슬프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땅으로 해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문학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회경제학이나 사회철학에서는 하나의 구조물로 보고 상부구조와 토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문학은 상부구조에 포함되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사람들의 정서와 영혼 감성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는 맨 처음에 꼽고 있습니다. 상부구조로 설명되는 삶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도 문학을 단연코 맨 앞자리에 세우는 것은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언어를 다루는 일이고, 인간의 삶을 시간적으로 전승하고 공간적으로 전이하는 문화라는 것도 언어로 기록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기록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학을 이런 것쯤이라 이야기해 놓고, 경남문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경남문학은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남지역을 주 제나 소재로 창작되는, 경남을 출신 배경으로 하는 문인작가들이 창작해내는 문학작품과 그에 따르는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 모 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란 문학은 작은 범위에서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인작가들의 순수한 개인의 창작행위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문학작품이라는 창 작물을 창작하는 생산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은 물론이고 문학작품을 향유하거나 문학작품을 발표하는 행사, 문학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고 소비자인 독자에게까지 전 달되는 문학작품의 유통과정과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에 의해서 상품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되는 소비 양상, 소비되는 과정을 포 함하는, 즉 창작과 창작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문학적인 행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남문학은 그러므로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창작활동 과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 전부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경남문학의 발전방향’은 그러므로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문학 창작활동과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 전부의 발전방향을 말하는 것이지만,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 ‘어디를 향해서 가야한 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문학은 100여년 남짓한 우리나라 현대문학사를 그동안 이끌어오 고 중심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 리나라 문학의 중심은 경남문학이라 할 만큼 많은 선후배 문인작 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학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 지역의 문학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나아질 수 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아니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행 위를 상품의 생산으로 보고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을 상품의 유통

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문학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과정을 상품의 소비로 생각하며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짚어보려 할 것입니다.

가. 경남문학의 현황

1. 경남에서 문학을 하는 문인작가들은 2012년 1월 10일 현재, 경남문학관의 ‘경남의 문인들’ 자료에 따르면 1,3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에 포함되는 유통과정에 까지 참여하는 인원수를 포함하면 경남문학의 인구는 몇 배나 늘어날 것입니다. 통계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경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반적인 문학행위에 관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해서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경남문학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남에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인작가들, 경남에서 문학작품의 생산에 관여하고, 유통이나 소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과 문학관련 행사 등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추론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2. 경남도내에는 각 시·군마다 문인협회나 문학회가 있어 발간되는 문학지가 있고, 경상남도 전지역에 회원을 갖고 있는 문학단체로는 대표적으로 경남문인협회와 경남작가회의, 경남펜문학 등이 있는데 여기서 발간되는 ‘경남문학’과 ‘경남작가’, ‘경남펜문학’이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인 모임과 장르별 모임에서 발간하는 회원 위주의 문학지들도 있고, 일반인들의 문학 향유와 소비를 염두에 두고 간행되는 정기, 또는 부정기 문학지들도 마산과 진주 양산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문학관 자료실에 따르면 2008년 8월 8일까지 경남지역에는 100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 차례씩은 간행물을 내고 있어 여기에 회원들은 작품을 발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지난 2011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늦어도 2012년 11월 18일 전면 시행 이전까지 시행 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지금까지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항목별로 보면, 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제도 실시, 예술인 경력(또는 자격)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지원 예산 등입니다.

나. 경남문학의 생산

경남문학의 발전은 경남에 살고 있는 문인들이 생산해내는, 경남을 주제나 소재로 창작되는, 경남을 출신지역으로 하는 문인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생산하고 바람직한 유통과정을 거쳐 문학의 소비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인작가들의 삶이 행복해질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문인들의 창작 여건이나 환경을 최적으로 보장해주고 유지해주는 일임은 누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 누구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자 개인의 고유한 방식을 모두가 존중해주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학인들의 관심을 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문인으로 등단한 작가가 어떤 작품을 창작했을 때, 아니면 창작행위를 할 때 문학 외적인 방법으로 창작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심의 문학이나 진실의 문학은 있을지언정 엄격히 말해서 저항의 문학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문학은 언제 어디서고 불온하고 불안하고 전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학을 제도나 기관이나 권력이 지배하려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문학을 비롯한 현장문학에의 관심은 문학이 생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문학작품을 어떤 이념이나 어떤 주의, 어떤 사조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 이 또한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이 사는 현장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글을 쓴 문인작가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 창조했느냐? 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좁게는 발표된 작품을 이미 형성된 작가의 이미지나 경력 또는 기타 사회적인 역할을 선입견으로 갖고 평가함으로써 텍스트로서의 작품을 평가하거나 읽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경남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문학제와 문학상, 문학백일장 등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운영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문학의 보급과 문학인구의 양산,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 바람직한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는 문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에 반하는 일들 또한 적지 않게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과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일도 문제인데, 문인작가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는 일이 무슨 혜택을 받는 일인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현실인데,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인작가들이 권리를 찾는데 무관심하게 살아 왔고, 문학을 아직도 삶의 전부가 아닌 치기나 여가활동으로 생각하며 문인작가들을 전문직 종사자나 직업인으로 대우하기 보다는 생업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생활에서는 영원히 아마추어인 채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술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학상의 운영 문제, 문학제의 실효성 문제,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문제, 기타 다양한 백일장의 운영 등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경남문학의 유통

문인들에게 있어서 작품의 발표는 곧 문학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목숨과도 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문학작품을 발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정 작가가 특정문예지에만 발표를 하게 된다면 특정문예지가 특정인들에게만 지면을 할애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경남의 문인들은 우선 경남의 문학지에 발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발행되어 경남에서 읽혀지는 문학지가 경남의 문인들만의 놀이터가 될 경우에 지방문학지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게 되기도 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아직도 변방의 문인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어떤 곳에서는 지역의 예산으로 문학지를 만들면서 경남지역의 필진들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서울지역의 문인들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면서도 서울지역의 문인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배송하고 경남지역의 문인들에게는 돈을 받고 문예지를 팔아야만 하는 지극히 비경제적인 현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문학작품의 질을 생각해보기도 전에 서울에서부터 알려져야 제대로 된 문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하다 할 것입니다.

문학관련 출판물들의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일은 문인작가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문인작가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을 개선해 줄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집을 출판할 경우 경남에서 행해지는 문학은 경남지역의 인쇄소나 출판사를 택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출판업계의 인쇄나 출판물의 배송에 따르는 문제, 트렌드의 변화에 따르는 인지도에 관한 문제 등등의 이유로 가격의 문제와는 다르게 경남지역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경남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의 현대문학이 제도권내의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어 왔으므로 문학을 학문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즉, 아카데미즘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인작가의 배출, 문인작가로서의 활동, 문학에 관한 교육, 문학작품의 비평 등이 학문이나 교육이라는 비교적 획일화된 제도 속에서 도제 양성의 형태로 한국의 현대문학이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제도들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삶의 현장에서 문학이 교육되어지고 창작되어지는 생활의 문학이 가능해야 하고, 문학활동의 일반적 행위에 참여하는 문인작가들의 생업에 있어서도 문인작가들 스스로

가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경남의 문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문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모색’에 있어서 문학작품을 비평하고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될 만큼 발표되는 작품에 비해 학문의 영역이 아닌, 좋은 글들을 찾아내고 좋은 글들을 안내하는 우수한 비평가들의 활동이 경남지역에서 유독 미약한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학동호인 단체와 동호인들을 어떠한 경우로든 경남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또한 경남문학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이나 기타 문화관련 기관의 문학 강좌 출신 문인들과 문학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는 다채로운 문학회들의 활동도 경남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시·군의 자치단체마다 연례로 개최되는 문학행사에 참여하는 문인작가들의 행사참여도를 보면 등록된 문인작가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여기다가 서울에서 유명문인이 오면 밤이든 낮이든 시간에 구애 없이 어디든 달려 나오면서 지역의 원로문인들이 주인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평소에도 잘 챙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역문학에 대한 무성의한 ‘문학정신’도 이제는 조금씩 반성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문인작가들이 행사기간을 서로 조정해서 프로그램의 중복 보다는 교차 시행으로 문인작가들을 포함한 문학인들 서

로 서로가 연대를 해서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라. 경남문학의 소비

기본적으로 문학의 발전이라 함은 경제논리로 말하자면 소비가 잘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문인작가들은 어렵게 문학을 공부해서 문학작품을 창작해 세상에 어렵게 내놨는데, 읽혀지지 않으면, 또는 어떤 불특정의 독자가 그 작품을 읽지를 못해서 그 작가의 사상이나 정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면, 이것은 곧 문학의 암흑시대일 것입니다.

좋은 문학이 좋은 경로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수용될 때 문학은 발전할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양산된 문학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시·군 단위 자치단체마다 문인협회가 있어 지역문학 활동에 자치단체로 부터의 예산 보조를 받아 문학 활동을 하고 있고, 경남도 단위에서는 경남문인협회와 경남작가회의가 경남도의 예산을 받아 이러한 일을 대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문학, 문학제 문학, 낭송회, 낭독회 등의 활동에서 볼 수 있는데, OECD국가들은 전체 예산의 1.5%선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말은 국가예산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마당에 거론조차 힘들 것 같고, 주어진 예산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문인작가들 스스로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등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의 사업 선정이나 프로그램 운용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문학상이나 문학관, 문학비 건립 등은 당의 성이나 특색, 또는 역사성이나 문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시행이나 운영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심사위원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나눠먹기가 아닌 당해 사업의 텍스트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문인작가일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만, 일반인이 실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일의 특성상 한정된 정보나 기초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이나 정책의 기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 사업에 참여하는 문인작가들이나 자문에 응하는 문인작가들의 역할은 경남문학의 발전을 넘어 한국문학의 발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문학의 정체성 확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이나 설문에 응하는 문인작가들 스스로가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남문학의 발전은 그 누구도 보장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 맺는 말

경남문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쓴 이글이 본격적인 학술 논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읽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많은 선후배 동료문인들께서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걸로 알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문학의 발전’을 간결하게 말하면, 좋은 문학 창작품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아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

으로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인작가들의 삶이 창작을 하는데 자유로워야 하고, 삶에 있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문인작가들이 창작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곧 시행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문학은 결국 문학 창작품의 질이 좌우하는 것이지 행정당국의 정책이나 구조적인 제도가 좋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인작가들에 의해서 문학의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문학 외적인 그 무엇으로 문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문학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 문인작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직능대표제와 같은 성격의 정치 참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학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단든지 문인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단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는 비겁하고 나약한 문인작가들의 변명임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문학행위야 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인작가들은 문학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가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해야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학예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행정인력도 21세기가 되면서부터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문학을 생활의 문학으로 발전시키는 모임들도 인쇄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웬만하면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활자화하여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량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

학의 영토가 한결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양적인 성장을 제도나 정책이 나서서 질적인 성장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문인작가들 스스로가 보다 진실 되고 보다 진정성 있는 작품들을 창작해서 양적인 확대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보다 넉넉할 때 진정한 경남문학의 발전은 이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집

시대의 고통과 개인의 아픔을 한꺼번에 노래하다

— 정공채 시인



하아무 편집위원

아고라 토론방 : 처음 올라온 글

제목 : 정공채 시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날라리맘보(Nalrari-mambo****) 14.07.03. 22:31

문학, 특히 시 고수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시나 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본 것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지요. 돈 들여서 시집은커녕 소설책 한 권도 사본 일이 없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햄버거나 피자를 사먹지,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저는 그랬거든요. 꽃이나 마찬가지지요. 저는 여자한테 절대 꽃 선물 따위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나? 뭐, 하여튼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전 일하던 편의점에서 잘렸어요. 겨우겨우 구한 알바 자린데, 잘리니까 기분 더럽게 꼴꼴하더라고요. 뭘 잘못해서 잘린 건 아니고요, 사장이 자기 마누라의 사촌동생인지 누군지를 나대신 쓸 거

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고시원 방세를 줘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물러나야지 어찌겠어요.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군요. 돼지껍데기집 처마 밑에 비를 피하는데, 고소한 냄새는 나고 배는 고프고, ……울컥 서럽더라고요. 결국 주인인 것 같은 똥땡이 아저씨가 노려보고 있어서 거기서도 나올 수 밖에 없었지요.

뛰어서 지하철역까지 갔어요. 완전 비 맞은 생쥐 꼴이 되었지요. 그런 꼴이 되자 갑자기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밀려나고, 하다못해 비를 피하던 데서까지 밀려났다 싶자 뭔가가 안에서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된 것이지요. 아마 그때 누군가 걸렸다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길손」이라는 시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왜 있잖아요. 지하철역 벽면에 하나씩 붙여놓은 시 말이에요. 그 지하철역을 수십번, 수백번 넘게 다니면서도 한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기야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폰’에다 눈을 주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날은 달랐어요. 그 시를 보자 단번에 가슴에 와서는 터질 듯한 가슴을 스르르 가라앉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비올 때 처마 밑에 섰는 나그네

이 비가 그치면 오죽 가리야

주인(主人)이야 처마 내어 들창비를 막지만

잠시 기댄 나그네를 못마땅해 할손가

그 주인도 나그네 되어 어느 길을 가다가

풍우대작(風雨大作)하는 날 비바람 피치 않을손가

나그네 따로 있는가
주인이 따로 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처마 밑에 잠시 기대이는 몸

이 비가 그치면 가라 하지 않아도
오죽 가리야 길손인 걸

—시, 「길손」 전문

그 때의 제 상황이란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저는 집, 엄밀히 말해 고시원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받은 알바비로 소주를 한잔 할까 생각했었지만 이상하게 「길손」이라는 시에 사로잡힌 셈이지요. 인터넷에서 정공채 시인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같은 경남 하동 사람이더군요. 물론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하동읍과는 조금 먼 고전면이었습시다만, 어쨌든 무척 반가웠습니다. 뭐, 원래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도 고향을 떠나서 인근 진주로 이사를 가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저는 정공채 시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공채 시인의 시와 작품세계, 그리고 삶에 대해 아시는 고수님은 도와주십시오. 인터넷에 나온 간단한 약력이나 여기저기 퍼올려져 있는 대표시 몇 편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토론방 : 두 번째 올라온 글

제목 : 고 정공채 시인에 대해 알고 싶은 겁니다.

날라리맘보(Nalrari-mambo****) 14.07.04, 23:32

저는 지난번 정공채 시인에 대해 알고 싶다는 글 올렸던 '날라리맘보'입니다. 문학에 대한 글이라 많이 안 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높은 편이더군요. 관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답글이나 댓글을 일일이 읽어보고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올려주신 정공채 시인 소개글은 전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긁어온 것이더군요. 그건 저도 다 봤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MBC에서 프로듀서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4·19 항거시를 썼다는 것과 「미 8군의 차」라는 시 때문에 필화를 겪은 것도요.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천의무봉이 무슨 소린지 사전 검색도 해봤습니다. '하늘의 직녀가 짜 입은 옷은 솔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문(詩文)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을 이룸' 혹은 '완전무결해 흠이 없음을 이룸'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정말 시인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공채 시인의 시를 올려주셨더군요. 그중에 90% 이상이 「간이역」을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이미 인터넷 상에 수없이 돌아다니는 시입니다. 저도 읽어보고 좋아하게 된 작품입니다.

피어나는 꽃은 아무래도 간이역
지나치고 나면 아아,
그 도정(道程)에 꽃이 피어 있었던가.

잠깐만 멈추어서
그때 필 것을, 설계
찬란한 그 햇빛을……

오랜 동안을 걸어온 뒤에
돌아다보면
비뚤어진 포도(鋪道)에
아득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꽃은 지고
지는 그 꽃에 미련(未練)은 오래 머물지만
저버린 꽃은 다시 피지 않을걸.
여숙(旅宿)에서
서로 즐긴 사랑의 수표(手票)처럼
기억의 언덕 위에 잠깐 섰다가
흘러가 버린 바람이었는데……

지나치고 나면 아아, 그 도정에 작은
간이역 하나가 있었던가
간이역 하나가
꽃과 같이 있었던가.

—시 「간이역」 전문

어떤 분은 「간이역」의 비유와 수사법 등의 작품분석에서부터
작품의 성격과 특징, 주제까지 붙여서 올린 분도 있더군요. 교과
서에 실린 작품이다 보니 제가 고등학생쯤으로 여겨져 그랬던 것
일까요. “피어나는 꽃”이 ‘가치 있는 삶을 살던 시절’을 의미한
다든지, “지나치고 나면”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던 시절이 지

나고 나면'을 뜻한다든지,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라는 것 따위들에 이르기까지 국어시간에 선생님이 판서하듯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남들 다 아는 내용이나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 한 편을 해부하듯이 갈기갈기 분해한 해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공채 시인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반적인 작품세계는 어땠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고, 한 편의 시로부터 시작된 시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다시 한 번 교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토론방 : 첫 번째 답글

제목 : 학창 시절, “그저 시가 생리처럼 내 몸을 돌고 돌아...”
시선(Li-Po****) 14.07.05. 02:22

저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교수가 정공채 시인의 추천을 받아 시인이 되었고 평론도 한두 편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제가 교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저 읽은 대로, 또 들은 대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공채 시인은 1934년 12월 22일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순환은 ‘공자와 같은 품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채(孔采)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3년 뒤에 태어난 동생은 ‘두보와 같은 문장가가 되라’고 두채(杜采)라 하였는데 후일 작사를 하면서 ‘두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

였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동생 정두수 씨도 서라벌예대 문창과를 나온 시인인데, 197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쓴 독보적인 작사가로 더 유명합니다. 〈가슴 아프게〉, 〈물레방아 도는데〉 등 당시 국내 정상급의 트로트 가수 치고 그의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다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정공채 시인에게도 고향 하동은 늘 그리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동땅은 산과 전원과 강과 바다를 한 군 안에 모두 갖춘, 햇빛 눈부시게 아름답고 산수 들수록 깊고 해맑은 풍광(風光)의 고장이요, 청유(淸遊)로운 명향(名鄉)”이라 했거니와 “바다쪽, 강의 하구쪽, 그리고 산, 그 어느 방향으로 들어도 그저 그만인 수향(水鄉)이요, 산향(山鄉)이요, 어향(漁鄉)이요, 전향(田鄉)”¹⁾이라 재차 강조한 바 있지요. 다음은 고향을 읊은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온갖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들랑
산수(山水) 절로 트인
하동땅 풍광(風光)길이 어떻습니까
하동땅으로 내려 오시지요

〈중략〉

산줄기 강줄기는 한줄기의 흐름
산정(山情)도 수정(水情)에 실려
반짝대며 흘러내려 아름다운 산하
말도 마라 하동 땅 너무 좋아서
여름도 시새움에
우향(雨鄉)으로 앞음에야

온갖 일이 마음에 잘도 들 때도
한 번쯤은 하동으로 내려와 보시지요
청죽(靑竹)에 바람 이는
우리나라 하동 땅이 좀 어떻습니까

—시 「하동(河東)땅이 어떻습니까」 중에서

네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부산진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강제소개령으로 7월에 가족이 모두 고향 하동으로 돌아왔어요. 일제의 전시체제가 극에 달했던 때라 젊은 사람을 징용과 정신대로 내몰고 수업보다 각종 공출에 군수품 작업에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했던 무렵이었지요. 박완서 선생도 “해방되기 전 반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지낸 적이 있다. 서울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일제의 소개령(疏開令)에 의해서였다”²⁾고 회고한 바 있는 그 즈음으로 짐작됩니다. 결국 선생은 1946년 고전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지요. 그리고 1950년 6·25가 일어나자 전쟁을 피해 다시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를 읽고 썼다고 하는데, 아동문학가 이원수, 강소천이 발간하는 <소년세계>와 <새벗>에 그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시가 그저 생리처럼 내 몸안을 돌고돌아 읽어야 좋고, 외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써야만 직성이 풀리듯 기쁘고 즐거웠”³⁾ 던 때였지요.

1) 정공채, 「섬오정 댕돌 위에 시를 쓰는 사람은」, 『너를 위해 빈가슴을 열며』, 해냄출판사, 1984.

2) 박완서, 「중언의 의무」, 『일본 그 슬픈 악연』, 답게, 2000.

3) 정공채, 「움직이는 시:나의 시, 나의 시론」, <시문학> 2004. 9.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하동 읍내장터에 함께 들렀다. 여기서 나는 넓은 명석 위에 깔린 책을 살펴보다가 노천명 시인의 시집을 발견하고는 대뜸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집은 당시의 종이 질도 그렇고 인쇄사정도 나빠서 그랬는지, 꺼끌꺼끌한 면에는 인쇄를 얹고 백지째 접어서 안으로 넣은 그런 제본이었다. 그러니까 안으로 접혀든 면에는 공백이 돼 있는 시집이었다.

나는 이 시집의 접혀진 책장을 일일이 칼로 절개하여 그 공백에다 시랍시고 써 나갔다. 노천명 선생의 시제가 '사슴' 이면 사슴을 쓰고, '산딸기' 면 나도 역시 그 뒷면에다 '산딸기' 제하(題下)에 썼던 것이다.⁴⁾

부산진초등학교를 다니던 유년 시절, 학교가 철길과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군수물자를 나르며 전쟁터로 오가는 일본군과 미군, 한국군을 자주 보고 들었고, 그것이 뒷날 「열차」 등을 쓰게 되는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섯 살 무렵, 부산 범일동 매축지 앞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일본인 농부에 의해 구조된 일이 있는데, “당시 강원도 탄광에서 캐낸 석탄이나 무연탄이 매축지 위로 산같이 쌓여 있었으며 아직도 그곳엔 미군 부대와 부두잔교(埠頭棧橋)를 빼놓은 광장 위로 석탄이며 무연탄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뒤에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석탄」 등의 시로 형상화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집안 형편상 다시 부산을 떠나 고향 하동과 가까운 거리의 진주로 이사를 합니다. 진주 농림중학교와 농림고등학교 입학과를 다녔는데, 당시 <문예> 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연소 시인으로 등단한 이형기 시인이 그보다 한 학년 위었습니다. 이형기 시인을 동경했던 정공채 시인도 곧 「눈내리는 밤에」라는 작품으로 학원문학상 최우수상을 받아 많은 문학도들의 선망의 대상

4) 정공채, 「나폴레옹과 시인」, 『나의 문학수업 시절』, 문학사상사, 1991.

이 되었답니다. 이때 심사위원이었던 조지훈, 노천명 시인이 극찬을 했을 정도였지요. 당시 잡지 〈학원〉은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습작을 독자투고란에 싣고 선후평까지 붙여주었는데, 이 잡지의 문학상 제도는 국내 문단의 등용문으로 유명했다는군요.

이 때문에 당시 단골로 드나들던 진주서점에서는 '학생문사'라며 아예 의자까지 내어주며 마음껏 읽으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더군요. 그 무렵 학생이던 최계락, 이형기, 박재삼 시인 등과도 교류했던 그는 진주 인근에서 면장과 부군수 등을 역임한 숙부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진주 칠암동 탕자나무 울타리를 배회하며 시상을 다듬었고 특히 그는 달밤을 좋아했다. 강변 기슭을 거닐며 강물의 역사와 나무와 풀잎과 꽃들의 정체와 신비에 대해 사색했” 습니다. “늘 우수한 성적이었고 육상에 특히 뛰어났다. 달리기에는 늘 1등을 했고 탁구선수로도 활약을 했다. 운동에는 두루백군으로 수영을 즐겼음은 물론 속칭 ‘주먹이 센 사나이’로 통했”⁵⁾ 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귀거래(歸去來)」로 제1회 연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신문 〈연세춘추〉의 문화부장과 연세문우회 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이 무렵 어떤 후배는 정외과를 다닌 정공채 시인을 국문과 선배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기 전 3학년 때 짧은 기간 동안 하동중학교 강사로 교편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였지요.

대략 학창시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천생 시인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써볼까 합니다.

5) 강희근, 「불의에 항거한 시인 정공채」, 〈경남일보〉, 2011. 5. 30.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티즌 댓글1

하동사람갑 지난 4월 30일 하동 진교면 술상리에 있는 금오영당에서 추모식이 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까운 데 살면서도 한 번 가보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정공채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만간 꼭 들러 국화 한 송이 올려야겠네요. 시선 님,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원조한류짱 어, 정두수 노래비 봤는데…. 올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가는 바람에 끌려갔다가 봤어요. 하동 고전면 성평리, 맞아요. <물레방아 도는데>하고 <시오리 솔밭길> 노래비 있고 그 옆에 정자랑 디딜방아도 있던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작사계 거목이라든가, 거물이라든가 그러더라는…. 나는 노래가 청승맞아서 싫던데, 나는 힙합이 좋아. 힙합 짱!

생리통시러 시가 생리처럼 몸안을 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생리통 땀에, 아, 짜증나~.

그게아니고빙시나 니가 말하는 건 여자들만 하는 멘스, Menstruation이고…,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이 답답아!

생리통시러 알고 있거든. 아, 짜증 만땅!

날라리맘보 시선 님, 답글 너무 고맙습니다. 딱 제가 바라던 내

용입니다. 덕분에 정공채 시인이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한 편의 인생극장을 보듯이 눈에 선하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답글이 기다려지네요.

아고라 토론방 : 두 번째 답글

제목 : ‘날라리 세상’과 상실의식

시선(Li-Po****) 14.07.14. 01:49

제 글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글을 빨리 올리지 못하고 늦어져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뭐 사실 대학원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수 따까리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기말고사 본 거 채점하고 뒤�처리까지 하느라 그랬고요, 게다가 논문도 하나 써야 했거든요. 교수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지만 제가 대신 쓴 것이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박사과정까지 할 생각인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친구들은 교수 똥구멍을 빠네 어찌네 빈정거리지만 개네들이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 하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잖아요. 조금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일 뿐이지요. 저 하나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정공채 시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써온 데다가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하여 시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높았어요. 스스로 “어릴 때부터 전심전신이 괴롭고 아프고, 골수까지 저리는 시인이 되기 위해”⁶⁾ 살아왔다고 술회한 바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번은 박희진 시인이 그를 칭찬한다고 “미국시인 오든과 닮았다”고 했는데 정작 정공채 시인은 기분이 상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일화도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스스로 '마음의 귀족'이라고
칭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에 상처를 입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지요.

시를 읽는 동안에
나직이 따뽀지는
흰빛
술의 醺의 가득함

시를 읽고 있는 동안
가버렸던
마차의 빼걱대는 바퀴가
싱고 오는 가을
시끄럽지 않은
밤의 저 푸른 별의 얼굴
잊어버린
도시의 밤하늘!

—시 「시는 술이다」 중에서

하지만 일찌감치 학생문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도 좌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인문예지였던 〈문예〉지에 시를 응모했고, 여러 신문사의 신춘문예에도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선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인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인 1957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한국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하였습니다. 〈현대문학〉지에 1회 「종(鍾)이 운다」, 2회 「여진(女眞)」, 그리고 3회 「하늘과 아들」 등이 추천을

6) 정공채, 「죄의 붉은 열매」, 「너를 위해 빈가슴을 열며」, 해냄출판사, 1984.

받았어요.

훤칠한 외모와 열정을 지닌 시인은 매우 자유롭게 살면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추구해나갔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면서 자유롭게 거침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어디 얹매이기를 싫어하는 성정 때문에 사회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괴롭혀왔고, 자라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토록 권유하는 결혼마저도 뿌리쳐왔고 마음 내키면 소위 사실혼이라는—실은 동거생활이지만—것도 서너 차례씩이나 해버렸다.

뿐이라, 군대에 가서도 장교가 안 되려고 포대장실에서 자퇴원을 썼다가 침대방망이로 27까지 헤아리면서 엉덩이를 터트리기도 했다. 결국 임관 막바지에 가서 이등병이 되어 포병간부후보생 대열에서 떠나 사병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일등병 때 탈영해서는 십삼 년 후에 군형무소에 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아슬아슬한 발가벗은 시인생활의 인생인 것이다.⁷⁾

꽃꽂한 성미의 그는 소탈하고 온화하면서도 깐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품행이 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일췌 호통을 치기도 해 고독했지요. 그러면서도 특유의 문학적 정열로 자신만의 낭만을 낳았고, 자유롭게 거침없는 삶과 성품 때문에 그를 존경하여 추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의 의협심은 한국문단이 공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고 비굴하지 않으며, 언제나 약자와 빈자들의 편이었지요.

7) 정공채, 앞의 글.

사실 정공채 시인이 보기에 세상은 매우 부조리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6·25를 거쳤고 좌우익의 극한 대립과 자유당 정권의 부패, 4·19와 5·16 등을 겪었던 그에게 세상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런 세상을 ‘날라리 세상’이라 명명했습니다.(처음 정공채 시인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던 분의 닉네임이 ‘날라리맘보’ 였지요? 어쩌면 세상에 대해 정공채 시인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원래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거나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혹은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지요. 아마도 정공채 시인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탐탁치 못한 세상사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날라리 세상에 비가 내린다
 그 시월에 찬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늦비가 늦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반갑잖은 찬비에 시월 늦게 찬비다
 제기랄, 내리는 비 아무 때면 어찌랴
 내려라 내릴 바엔 줄기차게 내려라
 세상만사 뜻대로 될 때가 있더냐
 내리는 비 어찌랴 내릴 때면 내려라

2

날라리 세상에 망둥이가 제 격(格)이다
 빗줄기를 가로질러 흙탕물이나 통겨라
 옷 한번 마음잡고 입고 나선 늦은 철에
 통즉도(通卽道)라 어줍잖은 대갈통이 달린다
 제집끼고 잘살면 그만이더냐

—시 「시월의 비」 중에서

다소 체념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공채 시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의식이 이 시에서도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계집끼고 잘살면 그만이더냐”하는 대목이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해서 김태진은 정공채 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 상실의식이며,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의 주된 시의식⁸⁾이라고 주장합니다. ‘잃어버린 여자’ 운운하지 않아도 “누가 추억을 묻길래” “흰구름 한 조각을 가리켰다”(시 「단장」 중에서)와 같이 고통한 풍경을 읊은 시에서도 구름은 흘러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상실을 깔고 있다고 말합니다. “달밤을 잃어버린 잔을 든다”(시 「선술집」 중에서)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까운 시절 그리운 사람 껴안고 싶은 사람”(시 「사슴생각」 중에서)이나 “옛시절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살까”(시 「첫사랑」 중에서)에서처럼 과거에 대한 그리움조차 현재의 상실의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하지요. 그는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미 팔군의 차」도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더군요.

네티즌 댓글2

찬불이하동가 사실 많은 시인들이 상실 혹은 상처 같은 것으로부터 시를 쓰지 않나요? 그것은 한이나 슬픔 같은 단어로 바꾸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사랑도 노래하고 민족이나 역사를 노래하기도 한다고 보는데...

8) 김태진, 「정공채론:정공채의 정신적 고향」, 〈시문학〉, 1999. 11월호.

대머리여가수 솔직히 주된 시의식이 상실이니 하는 건 좀 안이한 분석 아닌가요? 평론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월미도사나이 나는 객적으로 정공채 시인의 「항구회상」이 좋아. “뱃고동 소리들은/ 어울리는 점심과 쇠주잔에/ 평화롭게 담깁니다”, “물결에 일렁대는/ 갯가지 불기둥 때문에/ 술잔은 사랑에 쉽게 물들고/ 그 사람의 담배연기도/ 곧 작별을 잘 합니다.” 아, 씨주 한 잔 땡기네.

월미도가시내 정공채는 모르겠고, 「항구회상」 좋네. 오봐, 나도 씨주 땡겨. 나도 사랑에 쉽게 물들고 싶어~. 오봐, 어디?

아고라 토론방 : 세 번째 답글

제목 : 4·19 최초 항거시와 「미 8군의 차」

시선(Li-Po****) 14.07.16. 04:11

어디 한 군데 묶이는 것도 싫고 또 누구를 묶는 일도 싫어하는 것 같다. 옷을 입어도 혈령해야 몸도 마음도 편코, 딱딱한 얘기나 뻑뻑한 자리를 피해 느슨하고 허술한 자리가 더욱 좋기만 하다.

걸음걸이도 사람에게조차 쫓기며 걸어야 하는 비좁은 도심에선 잠시도 걷고 싶지 않은 반면, 떠돌이 천재시인 김삿갓[金笠]이나 된 양 번두리 길이나 시골길을 마음 놓고 걷는 만보(漫步)를 즐긴다. “세월아 가거라, 바람아 불어라” 하고.⁹⁾

정공채 시인이 스스로의 성정에 대해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방랑벽을 지닌 것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직장을 전전한 이력만 봐도 짐작되는 일이지요. 처음 부산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민족일보와 학원사 기자, MBC 프로듀서, 라디오 드라마 〈전설 따라 삼천리〉 프로 담당, 제일기획, 크라운맥주 노조지부장 등 수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한때 (주)일성신약과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회 카피라이터상을 수상할 정도로 초기 광고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이지요. ‘좋은 종이 좋은 펄프’라든지 ‘10년을 두고 평가하십시오’ 등과 같은 카피로 각광을 받은 것을 보면 역시 언어감각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등단하고 첫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4·19입니다. 4·19가 일어나기 얼마 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학생들의 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경찰의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이 무렵 시인은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산으로부터 전해진 참혹한 소식에 의분한 나머지 「하늘 이어」라는 시를 단숨에 써서 자사가 아닌 경쟁지 국제신문사의 문화부장이며 아동문학가인 최계락 시인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편집국장은 하동 북천 출신의 작가 이병주였는데, 파격적으로 사설란을 비우고 정공채 시인의 시를 본문기사보다 조금 더 큰 활자로 실었습니다. 이 시는 4·19 당시 최초의 반독재 저항시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9) 정공채, 「만보(漫步) 이야기」, 『너를 위해 빈가슴을 열며』, 해냄출판사, 1984.

지금 하늘이여
 총을 맞은 이 땅의 봄이 마산에서
 마산에서 핏빛으로 안타깝게 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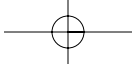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꽃같이 피어오르는 소년을
 남쪽바다
 부두 앞 수면 위로
 실종(失蹤)은 얼굴에 포탄(砲彈)을 박아
 십칠세(十七世)를 떠올렸습니다

〈중략〉

하늘이여, 어서
 본래의 뜻대로 우리를 민주주의 나무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바로 백성들의 꽃과 열매의 수목으로 자라게 하여주소서
 이제 거칠은 구름을 하늘에서 거두시고
 총을 맞은 한국의 봄을 마산에서 살리소서

—시 「하늘이여」 중에서

사실 시인은 우리 강산의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민족을 끔찍
 이 사랑하고 있음을 줄곧 드러내어 왔었어요. 등단작인 「하늘과
 아들」에서부터 “늙은 느티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은 모이고/ 젓
 빛으로 남빛으로 올 강물에/ 기약(期約)을 모두 걸어 놓는다/ 하
 늘이 흐르는대로/ 주름잡힌 대지(大地)에서 목숨을 맡기고 흐른
 다”고 유장하게 노래했지요. 1959년 제5회 현대문학상을 받은
 「석탄」의 근저에도 민족주체성이 깔려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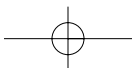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억만 년의 생성의 바람 소리와
 천만 년의 변성의 파도 소리와
 하늘을 덮고 땅을 가린 원시림의 아우성과
 화산과 그때마다 구름같이 우우, 달리던 둔한
 동물들이

캄캄한 지층으로 지층으로 흘러온 뒤로
 용암과 산맥의 먼먼 밑바닥에서
 귀머거리 되고, 눈머거리 되어 검은 침묵 속에
 죽었노라
 검은 침묵 속에 생성하는 꽃이었노라

—시 「석탄(石炭)」 중에서

그리고 곧 그 유명한 「미팔군의 차」 필화사건이 터지고 말지요. 사실 이 장시가 1963년 <현대문학> 12월호에 전재되었을 때 국내 시단의 눈길을 끌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듬해부터 <신일본문학>, <신작가>, <현실과 문학> 등 일본 잡지들이 앞다투어 이 시를 일어로 번역해 실었고, 당시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오다 마코도가 『제3세계의 문학』을 편집하면서 한국문학으로는 이 작품만을 다루게 되었어요. 일본 문단은 “미국의 흉악한 본질, 민족주의 상실에 대한 비판, 미국에 종속되는 한국 정부의 비판 등이 주제가 되어 정개되는 시이며, 동시에 미국을 조국의 땅에서 추방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문단에서 문제작으로 다루어지자 그제야 중앙정보부가 본격적으로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도 시인의 시를 반공법으로 읊아매어 문제시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기소단계에서 조지훈, 김현승, 김용호, 조연현 등에게 시의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 시”이자 “자유민족정신을 살린 서사적 서사시”라고 평가하였고, 비로소 정공채 시인은 문단 중진들의 보증서(?)를 받고 풀려날¹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자유롭지 못한 한생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자야,
당신이 나에게 있어 주는 동안은
품(品)
일등(一等)이 되는
당신.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바람 많은 항구에
가서 메인다.

—시 「미팔군의 차 · 11」 중에서

시인은 스스로 “여기서 ‘당신’ 이라 한 ‘당신’ 은 「미팔군의 차」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 여성을 두고 쓰면서, 이 ‘당신’ 속에 주체의식을—곧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당신’ 이었다”¹¹⁾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 이근배, 「문학동네 사람들」, 〈중앙일보〉, 2003. 2. 5.

아고라 토론방 : 또다른 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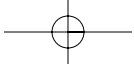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제목 : 「미 8군의 차」는 구호 아닌 서정으로 표현한 반미
미8군의차표한장(ticket****) 14.07.17. 18:27

시선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미 8군의 차」에 대한 당시 상황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뭔가 조금 미흡한 듯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황도 정황이지만 작품을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같이 읽고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필화(筆禍)는 닫힌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르그송의 말대로 닫힌사회는 본능에 가까운 습관이나 위압, 제도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의무에 따라 안으로는 개인을 구속·억압하고, 밖으로는 배타적이며 자위와 공격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폐쇄적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문화의 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과도하게 짝어누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필화인 셈입니다. 결국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권력집단의 자기 고발이 필화로 나타납니다.

사실 정공채 시인이 미군을 소재로 시를 쓴 것은 당시로 보면 가장 정확한 ‘목표지점’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단의 평가대로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한국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해방의 은인이라고 맞아들인 미군은, 실은 ‘전쟁에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무서운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전화(戰禍)를 몰고왔고, 여인 겁탈, 민중 역살 등 폭거를 일삼는 증오의 적이었기에 격노한 목소리로 노래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 정공채, 「女神의 이불」, 「너를 위해 빈가슴을 열며」, 해냄출판사, 1984.



나와 백년의 열차를 타야 할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운전하는
미팔군의 차를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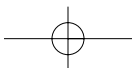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바퀴는
나의 맨발이 못따르는
휘발유를 타고
바퀴는 굴러갔다.

버드나무에 말을 맨 주둔
자본이
땅 위에서 황혼 때의 꽃밭같이
꽃으로 피었다.
공주들은
주로 그 꽃만 좋아하였다.

그리고
달리는 바퀴 위의 미팔군의
차안은
이러한 꽃으로 가득차
자본은 빛나도록 달리고 있다.

—시 「미팔군의 차 · 24」 중에서

시의 화자와 백년열차를 타야 할 여자는 맥없이 미팔군이 운전하는 차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도 맨발로 따라잡을 수 없어 무기력하게 바라만 봅니다.



우리의 창고는 비어 있고
 기적이 조금 든 나의 포켓에서
 나와 백년의 열차를 타야 할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운전하는 차 안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잔인하라. 잔인하라. 잔인하라.

〈중략〉

나는 더 이상 바보가 되기 싫었다.

빈 나뭇가지
 배급이 말라버린
 주먹에
 우왁스런 가시가 자꾸 돌아 오른다.

—시 「미팔군의 차 · 25」 중에서

화자는 “잔인하라”며 다소 자조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허한 다짐만 되풀이 합니다. 그것은 식민 본국의 무차별적인 문화적 · 경제적 · 정치적 침탈과 전횡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자기방어기제¹²⁾인 것입니다.

가끔, 가끔, 와서 멎는 미팔군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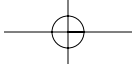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12) 박기수, 「매혹과 분노의 자기 성찰:정공채, 「미 8군의 차」를 중심으로」, 〈제3의문학〉, 2008. 가을.

벽에 핀 우리 꽃들을 사갖고 간다.
 교대로 드나드는 이국의 나비.
 깨끗이 빨래한 침대.
 비극의 눈을 가진 여자가 눕는다.
 비를 맞는다.
 오래 안정해 있는 침대가 아니다.
 줄줄이 비를 맞고
 흔들리며 항해하는
 떠내려가고 있는 꽃.
 이국의 나비를 싣고 흘러가는 침대.
 눈에 비극을 흘리우며
 오늘밤도 공주들은 대개
 부끄러운 점포를 조그맣게 빌렸다.
 제발 이 거리에서는 꽃을 팔지 말아요.
 우리의 순경이 우산에게 타이르고 간 뒤
 조선히텔의 지붕 위에
 한국의 달이 떴다.

—시 「미팔군의 차 · 26」 중에서

꽃을 사는 이국의 나비, 그리고 매춘을 막는 무기력한 순경의
 모습 등이 건조하게 펼쳐집니다. 이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듯 조
 선히텔 지붕 위에 ‘한국의 달’이 뜬 모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목욕을 하고
 연모(年暮)의 마지막 문전에 서서
 아직도 육지가 먼
 해상에서 먹었던 썩은 과일의



많은 주름살.

가운데 가로놓인

깊은 주름살은

어허, 그 여자가

항구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까.

남자들이 떠들면서 팔고 사는

노예(奴隸)의 꽃을.

.....

.....

.....

오랜 때를 밀어버리고

목욕을 한

깨끗한 이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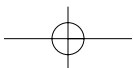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썩은 과일을 먹고 발병한

바른 폐(肺)를

수술해야지.

—시 「미팔군의 차 · 27」 중에서

「미팔군의 차 · 25」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미팔군의 차 · 26」에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구체화되었다가, 「미팔군의 차 · 27」에서는 앞선 두 맥락을 수렴하고 있다는 분석은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 25의 나에 대한 자기성찰과 26의 너에 대한 성찰이 27에 와서는 너에 대한 연민과 이해로 질적 전화를 이루는데, 이는 식민주의 피해자로서 연대의식의 확인이며 동시에 극복의 모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관념이나 의식



이 아닌 체험과 실재를 기반으로, 구호가 아닌 서정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적 성취를 보다 높일 수 있었다¹³⁾는 것입니다.

아고라 토론방 : 네 번째 답글

제목 : 시의 품질도 최상, 시의 품위도 최상

시선(Li-Po*****) 14.07.20. 01:55

미8군의차표한장 님, 잘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나 설명보다 정작 시인의 작품을 직접 읽는 것이 더 낫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글쎄요,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도 작품 위주로 소개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정공채 시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소개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미8군의차표한장 님, 그리고 날라리맘보 님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시인의 시를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평론가가 윤재근일 것입니다. 시인과의 친분으로 봐도 그렇고, 시인을 가장 정확하게 본 평론의 질 또한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재근은 시인을 ‘삼상(三上)의 시인’¹⁴⁾이라 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시문(詩文)을 생각하기 쉬운 세 곳이 마상(馬上)과 침상(枕上), 그리고 측상(廁上)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정공채 시인은 마상의 시로 시작하였는데,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음

13) 박기수, 앞의 글.

14) 윤재근, 「삼상의 시인」, 『정공채 시 전집』, 제3의문학, 2008.

을 뜻하니, 인간과 자연을 노래하였다는 뜻이지요. 30대는 측상의 시라 할 수 있는데, 속엿 것을 배설하는 것이니, 분노와 저항과 역설과 해학이 한데 엉킨 시의 시대인 셈이지요. 40대에는 침상의 시를 쓰니, 사지(思之)의 시, 즉 삶을 관조하는 시의 시대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삼상의 시는 가장 우수한 시를 말하니, 시의 품질로 보아서도 정공채는 삼상의 시인이요, 시의 품위로 말하여도 삼상의 시를 많이 낳은 시인이라 극찬을 하였지요.

문학평론가 조남익은 제4시집 『사람소리』(1989년) 발문에서 정공채 시인을 추천한 혜산(兮山) 박두진 시인이 ‘천의무봉’의 시인이라고 한 말을 앞세우며, 그는 출발에서부터 스케일이 크고 다정다감했으며 화려한 맥락을 이끌거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시어는 개방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취향에 적극적이는데, 현대어로 무장된 ‘리듬의 힘’이 생동한다고 평했지요.

그런가 하면 1998년 제8회 편운문학상 심사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조태일, 박이도, 임현영, 이가림은 “전후파 특유의 도시적 감수성으로 실존적 고독과 고뇌를 노래하는 데 매우 개성적인 솜씨를 발휘했다. 여자, 사랑, 술, 재즈, 바다, 부두, 자유 등의 주제를 화려한 모더니즘적 어법을 구사하여 스마트하게 형상화하는 기량은 멋부리는 스타일 이상의 시적 천분을 가늠케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미주의적 메시지가 짙게 깔려 있다는 이유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미 8군의 차」를 비롯한 그의 강렬한 현실인식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치열성은 그가 자유분방한 언어의 기교에만 매달리는 시인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고 지적하면서, 삶과 현실의 표면보다 이면을 더욱 예리하게 파헤쳐 그 부조리한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그의 이른바 ‘움직이는 시’에서 우리는 시대의 고통과 개인의 아픔을 한꺼번에 거머쥘려는 복합적인 상상력의 완숙미를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창적인 발

상과 메타포의 창조를 통해 우리시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었지요.

최영욱 시인은 “지나고 나면 이미 과거라고 시인이 노래했듯, 그러나 섬진강가 안개꽃 뼈마디에 다시 필 거라던 시인의 말,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유정의 말씀으로 오롯이 살아나고”¹⁵⁾ 있으며, 안익수 시인은 “그는 시인의 신화”¹⁶⁾ 라고 단정 짓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공채 시인이 등단하고 22년 만에 낸 첫 시집 『정공채 시집 있습니까』의 머리말 ‘시의 길’ 중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집을 묶어내지 않았으면 그의 스승 박두진 시인조차 ‘첫 시집을 내고도 스승에게 우송하지 않은 꽤 씹힌 제자’로 오해했다고 하지요. 어쨌든 그 시집에서 정공채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필이면 가난과 울적으로 쌓이는 시인의 길을 가느냐 하겠지만, 나는 이 길이 좋고 거둬 좋아서 고적(孤寂)과 진실(眞實)을 씹으며 생을 만끽하고 있다. <중략> 천질적(天質的)으로 시인이고 숙명적으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시(詩)의 길 아닌 다른 향방(向方)의 길이 되려 외도(外道)”라는 것입니다. 천상 시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티즌 댓글3

미팔군의차표한장 시선 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평론가 채수명 씨가 그랬지요, 한국 현대가 낳은 선비적 문학천재라고. 대

15) 최영욱, 「낭만을 압도한 허무의 시인 정공채」, <하동문단>, 제4호, 2008.

16) 안익수, 「고독한 미학의 순례자:정공채 시인론」, <시문학>, 2004. 9.

단한 시인임에 분명하고, 88올림픽 때였지요, 개막식 때 그의 시가 서시로 낭송되는 장면이 전세계로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선 예, 맞습니다. 문우들과 술을 즐긴 것과 화통한 인간미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지요. 시인통신이나 피맛골 소문난 집과 같은 술집에서의 일화는 아직도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대머리여가수 그런데 그만 마작에 손을 대는 바람에 재산을 탕진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간 일은 아쉬워요. 탁월한 능력에 원칙적이고 바른 언행으로 유명하셨다던데, 존경하고 추앙하는 쪽도 있고 오히려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던데….

미팔군의차표한장 대머리여가수님은 별 걸 다 알고 계시군요. 사실 문인의 정치 참여를 싫어했던 정공채 시인이 YS의 대통령 선거 연설문을 작성해주고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YS정권의 문화부장관으로 입각하는데 실패하고 한동안 그 충격에 방황했다는 것도 그렇고….

시선 김대중 정부 때는 입각 요청을 받았지만 정공채 시인이 즉각 고사한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는 정공채 시인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라리맘보 지금까지 제 궁금증을 풀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게요. 정공채 시인의 시비가 있다던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감자바우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요. 여기 아우라지 처녀상이 있고, 정공채 시인의 시 「아우라지1, 2, 3」이 새겨진 시비도 있어요. 여기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 중 한 곳인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마산가고파 전에 내용 중에 정공채 시인이 4·19 최고 항거시를 썼다고 했다가아인고. 3·15의거로 죽은 김주열 때문에 써서 국제신문 사설란에 실었다 켜다 아입니까. 그만큼 당연히 여기 마산 구암동에 있는 3·15묘역에 그 시비가 있지요. 없으마 안 되지.

시비걸지마라말이야 저번에 북한산 올라갔다가 봤어요. 정공채 시비! <영봉(靈峰) 시비> 라고 되어 있던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공채 시인은 북한산의 이름 없는 한 봉우리를 영봉이라 명명하고 영봉시를 헌시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산을 어디라 손대려 하느뇨”로 시작하는 시였어요.

하동포구팔십리 정공채 시인이 태어난 고장이니 당연히 여기에도 시비가 있지요.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하동을 섬호정 문학공원에 시인의 찬불이하동가(燦不二河東歌)가 새겨진 시비가 있습니다. 고향 하동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배어나는 작품이랍니다.

날라리맘보 와, 굉장하 많네요. 서울에 강원도 정선, 경남 마산과 하동.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다음에 알바해서 전국을 여행하며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동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공채 연보

1934년 12월 22일 경남 하동 고전면 성평리 출생(아버지 정순환은 장남에게 공자와 같은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채’라 이름을 지어주고, 3년 뒤 태어난 동생은 두보와 같은 문장가가 되라고 ‘두채’라 하였는데 후일 작사를 하면서 ‘두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부산으로 이사

1938년 39년 부산 범일동 매축지 앞바다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 일본인 농부에 의해 구조됨

1941년 부산진초등학교 입학(5학년까지 다님)

1945년 5학년 때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해 <소년세계>와 <새벗>에 수록됨. 7월 일제의 강제소개령으로 가족 모두 하동으로 돌아옴

1946년 고전초등학교 졸업

1950년 6월 전쟁 발발로 다시 부산으로 이사

1952년 진주농림고등학교 재학 중 시 「눈내리는 밤에」로 제5회 학원문학상 최우수상 수상(심사위원 조지훈, 노천명 시인).

1953년 진주농림고등학교 입학과 졸업.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대학 재학 중 시 「귀거래(歸去來)」로 제1회 연세문학상 수상, 대학신문 <연세춘추> 문화부장 및 연세대 문우회 회장)

1957년 하동중학교 강사로 근무

1957년 11월~58년 4월까지 <현대문학>지에 박두진 시인에 의해 3회 추천(1회 「종이 운다」, 2회 「여진(女眞)」, 3회 「하늘과 아들」)으로 등단

- 1958년 연세대 정외과 졸업, 부산일보 기자
- 1959년 제5회 현대문학상 수상, 수상작품은 시 「석탄」, 「자유」, 「행동」 등 3편
- 1960년 4·19 최초의 항거시 「하늘이여」를 4월 14일자 국제신보(현재 국제신문) 조간 제1면 사설란에 발표(당시 편집국장은 하동 출신의 소설가 이병주). 학원사 기자
- 1961년 민족일보사 기자
- 1962년 MBC 제1기 프로듀서(~1969년)
- 1963년 MBC 라디오 ‘전설따라 삼천리’를 제1회부터 3개월간 집필. <현대문학> 12월호에 장시 「美 8軍의 車」 전제
- 1964년 장시 「美 8軍의 車」가 일본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學)>, <신작가(新作家)>, <현실과 문학>, <적기(赤旗)>, <대판외대(大阪外大)기념논총> 등 11개 일본문학지에 번역되어 수록되었고, 베스트셀러의 저널리스트 오다 마코토는 『제3세계의 문학』을 편집하면서 한국문학으로는 「美 8軍의 車」만을 다룸. 이 여파로 반공법 위반 내지 반미주의자 혐의를 받아 7년간 필화의 고통을 당함.
- 1968년 조선맥주 노동조합 선전부장
- 1970년 조선맥주 노동조합 부지부장(~1974년). 한국문인협회 이사(~1978년)
- 1971년 수필집 『비에 젖읍시다』 간행(문학예술사).
- 1973년 동인지 <목마시대> 발간
- 1974년 조선맥주 퇴사 후 제일기획을 비롯한 (주)일성신약 등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면서 제1회 카피라이터상 수상.
- 1977년 수필집 『지금 靑春』 간행(신여원).
- 1978년 현대시인협회 부회장(~1988년). 평전 『아, 전해린』 간행(문학예술사).

- 1979년 첫 시집 『정공채 시집 있습니까』 간행(유림사), 제4회
시문학상 수상. 평전 『오늘은 어찌하랴-김삿갓의 시
와 인생』 간행(학원사).
- 1980년 평전 『우리 노천명』 간행(백양출판사).
- 1981년 역사소설 『초한지』 간행(전3권, 대가출판사). 제2시집
『海店』 간행(관동출판사), 제1회 한국문학협회상 수상.
우화집 『오늘 이솝이야기』 간행(백양출판사).
- 1982년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이사(~1986년). 평전 『우리
어디서 만나랴-공초 오상순』 간행(백양출판사). 변안
소설 『목로酒店』 간행(백양출판사).
- 1984년 수필집 『너를 위해 빈 가슴을 열며』 간행(해냄출판사).
- 1986년 제3시집 『아리랑』 간행(오상출판사).
- 1988년 수필집 『너무 늦은 편지』 간행(백양출판사).
- 1989년 제4시집 『사람 소리』 간행(평야). 수필집 『너의 아침에
서 나의 저녁까지』 간행(문음사).
- 1990년 제5시집 『땅에 글을 쓰다』 간행(신원문화사).
- 1997년 예술가의 모습들 『노을에 가다』 간행(문화예술사).
- 1998년 제8회 편운문학상 본상 수상. 한국현대시인협회 제15
대 회장
- 2000년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회장
- 2003년 제 6시집 『새로운 憂愁』 간행(제3의문학).
- 2004년 제41회 한국문학상 수상
- 2005년 제8회 문예한국 대상, 제7회 설송문학상 수상.
- 2008년 4월 19일 하동 섬호정 문학공원 ‘시의 언덕’에 「찬불
이하동가(燦不二河東歌)」 시비(詩碑) 제막
- 2008년 4월 30일 폐암으로 운명, 한국시인협회장으로 고향
하동 금오영당(진교면 술상리 소재)에 안장.
- 2008년 7월 『정공채 시 전집』 출간(제3의문학).

특집

최후 진술문

박종국

존경하는 재판장님!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양심의 가책(呵責)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은 제가, 피고, 그것도 범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법정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최후진술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참혹해서 며칠을 불면의 밤으로 뒤척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잇속을 좇아 남과 얼굴 붉힌 적이 없습니다. 세파(世波) 내돌리지 않고 교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그 소임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제겐 아이들이 희망이자 믿음입니다. 해마다 아이들을 만나면 친구를 위하고, 더불어 지내자고, 좋은 일 곳은 일 함께 나누자고 애써 부추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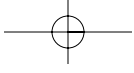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다소 법리(法

理) 형식에 맞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툴더라도 오직 평교사로 아이들과 살아온 제가 세상 문리(文理)에 해박지 못하다는 것을 너그럽이 이해하시고 경청(敬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합리화에 그렇게 영악하지 못합니다.

저는 1983년 2월에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거제도 학산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에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해 6학년을 맡았고, 이후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남학생들은 거의 교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경기가 좋은 때였으니 교사의 박봉(薄俸)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떳떳하게 생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 햇병아리 교사의 때깔을 벗기도 전에 저는 참으로 암울한 교육현실을 맛보아야했습니다. 그때 학교는 너무나 비민주적인 전횡(專橫)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장의 권한은 가히 권위적이며 무소불위였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전체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감마저 꿰어앉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빈발했습니다. 그러니 교사들을 어떻게 다루었겠습니까? 잘못된 학교행정에 대해서 입 한번 뱉었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무서운 공안 정국이었습니다. 그 무렵 암울한 교육 현실을 직시한 선배 교사들이 전국교사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사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사들은 마음대로 단체를 결성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로서의 제 양심을 지키고자 전교조 결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온갖 핍박을 받고는 남해라는 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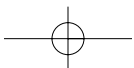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좌천(左遷)되었습니다. 비록 가담 정도가 미미해서 해직의 굴레는 쓰지 못했지만 참담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교조 교사라는 것 하나만으로 갖은 핍박(逼迫)과 폄하(貶下)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곳인들 바람불지 않겠나

오인태

그곳인들 바람불지 않겠나
 이 사람 내 친구 박 선생
 가슴이 뜨겁고 달변이던 자네가
 전교조 탈퇴서를 쓴 이후
 말을 잃고 모임에도 보이질 않더니
 결국 섬으로 들어갔다는 소문 들으며
 젖어 오네 자네 외로움과 분노
 발 담그고 있을 바닷가 파도로
 어디 섬으로 숨을 사람 자네이겠나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살던 고향
 그 씨나락 같은 고향 등지고
 낯선 도회 공사판 사글세방으로 떠돌며
 ‘선생자식’ 기대 하나로 살아온
 하늘같은 부모 뜻 차마 거역할 수 없어
 끝내 눈물로 손도장을 찍으며
 아이들 앞에서 펍펍 가슴을 쳤을 자네나
 티 하나 없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 양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
 차마 꺾을 수 없어 교문을 나서며



자네 부모와 똑같은 부모를 떠올리곤
 가슴을 쳐야 했던 이 친구나
 아니네 섬으로 숨어야 할 사람
 이 땅 수천의 선생의 가슴에 못질한 사람
 이 땅 수만의 부모의 가슴에 못질한 사람
 이 땅 수십만의 아이들의 가슴에 못질한 사람
 그런 사람이네 그런 사람 향해
 자네 일어서 나오게
 나와서 함께 가세
 어디 그곳인들 바람불지 않겠나
 더 큰 바람 더 큰 파도에
 몸부림치고 있을
 이 사람 내 친구 박 선생

—오인태 시집 『그곳인들 바람불지 않겠나』 모두

오인태 시인은 저와 교대 동기동창으로 사는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평생 농투성으로 살아 부모는 선생 자식 하나 두었다는 게 모든 희망이었는데, 친구는 해직교사로, 저는 비굴하게도 타인의 손에 옥죄어 탈퇴각서를 쓰고 섬으로 묻혀들었습니다. 이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10년 여 거리에서, 명동성당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학생회관에서 새우잠을 잔 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담한 시기에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는 반드시 합법화된다는 일념(一念)으로 두터운 현실의 벽과 싸워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나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교조는 합법화되었습니다. 국민적 합의(合意)를 얻어낸 것이지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2년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직접 정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열악(劣惡)한 군소 정당에 소소한 후원금을 냈다고 교사들이 검찰에 불러 다니고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후원금 계류 교사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로 어이가 없고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거꾸로 치달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현재 창녕동포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머리가 굵어서 담임이 하는 말을 잘 헤아려듣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합니다. 자기보다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서로 돕고 생활하자고, 조그만 것 하나도 나누며 살자고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저는 30년 교직생활을 했어도 그다지 넉넉하게 사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달 월급을 받으면 먼저 아이들 몫으로 창작동화책을 사서 같이 읽고, 대안 학교를 비롯하여 운영재정이 열악한 데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아야 1,2만원이지만 그들에게는 금쪽같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당 후원금을 낸 것도 그러한 맥락(脈絡)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교사·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단정(斷定)합니다. 하지만 소액의 후원금을 낸 행위가 과연 기소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로 의문입니다. 고작 해야 '경고' 정도로 넘어갈 사안에 검찰은 무자비한 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瓦解)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 명백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평화적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稚拙)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어 수사 또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빼앗아 가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서슴없이 자행(恣行)했습니다.

검찰이 치졸한 법 해석을 앞세워 칼춤을 추는 의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와 같은 전교조와 전공노 등을 손보고, 진보정당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논리(論理)가 뻔합니다.

결국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確立)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납니다. 검찰은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기괴한 논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 관련은 무죄, 진보정당 관련은 유죄’가 검찰이 정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09년 시국선언 사건 때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몽땅 가져간 컴퓨터 서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수사 자체가 편법(便法)이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현행법이 지나친 기본권 제약(制約)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정설(定說)로 굳어져 있습니다.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검찰은 정당성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치졸한 민주노동당 후원금 수사를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2011년 12월 9일 인천지법 행정1부(최은배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신고 취지(趣旨)를 밝혔듯이, 재판부는 8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信念)을 가지거나 의사(意思)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고 전제(前提)하고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행사인 정당 후원금 납부로 직무상 어떤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侵害)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두고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彈壓)으로 비쳐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誤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違反)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금전(金錢)을 기부(寄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을 지지(支持)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違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소액을 기부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開始)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징계 재량이 남용(濫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리해 편파적인 법 적용 논란이 제기(提起)됐었습니다. 검찰은 교사, 공무원이더라도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해석은 법 제처 법령해석에 근거(根據)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부터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에서 국격(國格)을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그 어떤 선진국이

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범죄시하고 이토록 집요(執拗)하게 탄압한 단 말입니까. 심지어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解雇)를 일삼아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基盤)마저 빼앗고 있으니, 정권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가능한 것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악법(惡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자화상(自畫像)입니다.

결국, 검찰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에 후원한 교사들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한나라당만 봐준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은 현행법을 개정해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교사들의 정치후원금 제공과 관련해 명명(明明)한 판단기준을 갖거나, 교사들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은 불법이 어도 봐주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만 처벌하는 이중 잣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表明)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문제의 근원(根源)은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의 “일체(一切)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規定)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또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處身)이 요구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의 갈등(葛藤)을 예방

하기 위해 부득이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우려는 일말 이해가 갑니다. 교사가 교단에서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것, 선거 시기 교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는 것, 근무시간 중에 정당 활동을 하는 것 등은 금지(禁止)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 “일체(一切)”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制約)이며, 따라서 위헌의 소지(所持)가 강합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이 망각(忘却)되어선 안 됩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규정하며,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偏見)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이용”(교육기본법 제6조)되어서는 안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의(同意)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그 자신이 먼저 ‘능동적 시민’이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능동적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활동은 ‘능동적 시민’의 미덕(美德)입니다. 물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見解)에 따라 교육 내용을 왜곡(歪曲)하고 자신의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強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다른 제도적 조치(措置)로 해결되어야 하며, 교사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反)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로만 보는 주장은 경직(硬直)되고 획일화(劃一化)된 교육을 받고 정보부재의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들의 과거경험만을 기억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낡은 시각(視覺)에서 오는 편견(偏見)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교실 바깥에서 표명(表明)한 정치적 의견을 학생이 접하였다고 해서 학생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追從)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입증(立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사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받는다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회의(懷疑)하게 될 것인바, 교사들의 정당 후원금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반교육적”입니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許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認識)되기에 교사는 선거기간에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를 열 수 있으며, 프랑스의 교사는 한국의 교수처럼 정계 진출 시 휴직·복직이 허용됩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OECD 나라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교사 출신이며, 이들은 임기를 마치고 교직으로 복귀합니다.

1966년 국제연합(UN)에서 정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1997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정한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교사 역시 모든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부당(不當)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국제 표준은 원칙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法規)는 전교조를 표적(標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단체 등에 후원금을 제공했거나 직함(職銜)을 가지며 정치활동을 한 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6년 ‘뉴라이트교사연합’을 창립한 체육교사 두영택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승리연합’의 직능조직 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아무 제재(制裁)가 없었습니다. 이균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총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소속 교장들은 한나라당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았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措置)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법규가 편파적(偏頗的)으로 적용(適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 당시 추진 교사들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라는 맹비난을 받으며, 해직과 투옥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교원노조는 합법화되었지만, 여전히 교사의 정치활동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활동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직무방해를 염려해서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온당(穩當)하지 못합니

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입니다.

제 짧은 소견(所見)으로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財源)을 뜻하는 것으로,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所要)되는 경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는 정치자금으로는, 당원의 당비, 후원금(후원회 회원의 후원금,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금, 국가의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예에서 보듯 교사들이 낸 정당 후원금은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할 때마다 항상 인용(引用)되는 것이 헌법 제7조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제31조 ④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저는 이 헌법 조항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교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가 아닌 권리 조항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여겨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양심 있는 교사라면 근무 중에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파적(黨派的) 이유로 국가 정책에 충실(充實)하지 않고 공정(公正)하지 않다면 당연히 제한(制限)받아야하고 처벌(處罰)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직

무를 파(罷하)고 사회인으로 귀속(歸屬)되는 시점(時點)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理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정치활동과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에도 중립성(中立性)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종교를 가졌다고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에 교사의 종교 생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맥을 같이 하면 교사의 정치 기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나 공무원도 사적인 종교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듯이, 공적 영역(領域)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교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도 종교 행위를 하거나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자기 종교를 선교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되지도 않고 교회에 헌금(獻金)을 하는 행위 또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소시민(小市民)으로, 평교사(平教師)로 살면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이체 되어 나가는 후원단체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것도 최소한의 액수로 이루어진 후원금일 따름입니다. 민주노동당 후원금은 제 소득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교사의 직분(職分)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

다.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의 이방인(異邦人)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여 민주시민권을 박탈(剝脫)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정당 활동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킨다고 확신합니다. 그 당시 저는 막 시작한 약소 정당, 소외(疏外)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기치(旗幟)로 깃발을 든 정당에 참으로 작은 힘을 보탠 것이 제 후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를 30년이나 지난 지금 이런 사유(事由)로 법정 에 세운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때는 세금 공제까지 받으며 권장(勸獎)되었던 정치 후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위법(違法)이 된다니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중단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不察)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령이 과거에 회귀(回歸)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후진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혼자만의 안일(安逸)함이었을까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신감(自信感)이라는 것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바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교사의 자신감은 부단(不斷)한 지식연마(知識鍊磨)에서도 나오고 가르치는 기술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인 양심과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삶의 태도와 소신(所信)에서 발현(發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매달 만 원씩 후원해 온 민주노동당 후원금은 저

의 일관된 삶의 빛깔과 교육적 소신에 결코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30년 동안 교단에 선 교육자로서 저는 아이들을 정치적 편견(偏見)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을 일체(一切)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당 후원금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참여하는 정치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양심으로 하였던 소박한 기부였고 후원이었습니다. 부디 그 순수한 의도(意圖)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반드시 저의 오늘 재판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이 땅의 약자(弱者)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하였던 작은 행위마저 법으로 재단(裁斷)당하고 처벌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몇몇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르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충심(忠心)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 권리를 당당(堂堂)하게 주장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긴 진술문을 끝까지 경청(敬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박 종 국

/ 이 진술문을 작성하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와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12, 봄호, p100-104.
2. 대법원 판결문, 인천, 제주, 창원, 충북지방법원 판결문 참조.
3. 전교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관련 자료, 신문 인쇄매체, 인터넷 웹자료.

지역작가회의 초대시

| 광주 전남 초대시 |

김미승

김 완

김규성

고영서

최기종

안오일

조성국

박두규

조진태

| 광주 전남 초대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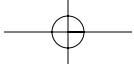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접속

김미승

플래카드 해진 노끈을 거머쥐고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오르는
호박넙쿨, 저 푸른 아우성
손 잡아줄 손 하나 없는데 벽을 향해
천 개의 손을 흔든다, 무시로
벽은 길이였다

살다보면 그런 때가 있다
너였구나, 으스스하게 껴안고 싶은
팽팽한 날것의 고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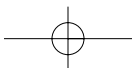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간신히 키를 돌아
플래카드 해진 노끈의 울울마다
제 손가락 단단히 끼워 넣는 호박넙쿨,
그래 거기 어디쯤
네 몸에 육십 축 전등을 켜고 싶은
그런 아득한 순간이 있다



사무친다는 건
너의 허공에
사다리를 놓는 일

김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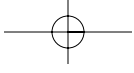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전남 강진 출생. 1999년 계간 『작가세계』로 등단. 시집 『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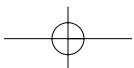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시인과 느티나무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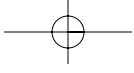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김 완

밤에 보는 그는 늘 빛이 났다
야간 공부 끝내고 내려오는 행정관 앞
잘 생긴 느티나무 한 그루 서있다
잘 빠진 몸매에 황홀한
연초록 이파리를 거느리고
이파리마다 방울방울 빛 방울 달고 있다
그도 우리처럼 인생을 공부하고 있는 걸까
하늘에서 별들의 웃음소리 들릴 때면
그의 빛나는 영혼이 별에 닿는 듯했고
덩달아 시인의 꿈꾸는 영혼도
통째로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았다
날 흐리고 비바람 몰아치는 밤
시가 잘 써지지 않은 밤에는
가끔씩 바람에 뒤척이고 흔들리는
그의 울음소리가 시인의 가슴에서
소용돌이치기도 했다
상처마다 구멍 숭숭 뚫린 가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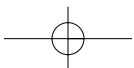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바람 세차게 부는 날도
뿌리를 뺏어 땅을 움켜쥐고
수액을 밀어 올리는 그의 맹목적 사랑이
시인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강이 되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면
어느덧 시인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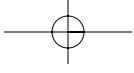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엘도라도의 밤

증도 밤바다에 가서 보았다
파란 하늘에 북두칠성 선명한
초여름 밤의 콘도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 들어온 정복자들로
얼마나 많은 인디언의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을까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슬픔이 별빛에 녹아 말간 빛으로 반짝였다
세상의 변질과 탐욕까지 증발해 가라고
성마른 주문을 걸어보는 유월 하순
인적 드문 모래사장 한 편에는 밤늦게까지
네 여인이 식욕을 털어내고 있었다
몇몇이서 하는 폭죽놀이는
완강한 어둠을 밀어내기에는
불꽃들이 너무 약했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에 묻혀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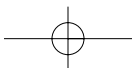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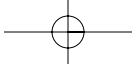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밤 파도가 만드는 시간을 들고나는
線들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김 완

1957년 광주출생. 2009년 『시와시학』으로 등단.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시학, 2011. 한국작가회의 회원, 시낭송회 비타포엠 이사. 현재 광주보훈병원 심장혈관센터장 E-mail: kvhwkim@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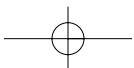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부엉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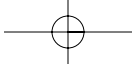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김규성

부엉이는 깎아지른 암벽동굴에 요새를 틀었다 속에는 이름도 다 모를 보물이 그득하다고 했다 전설은 닳다 지친 고무신에 날개를 달아주며 부풀어만 갔다 어느 날 그 풍선은 부엉이가 생쥐나 작은 벌레 따위를 물고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 살핀 뒤에야 소리도 없이 쪼그라들고 말았지만 어둑어둑해서야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어미부엉이가 큰 울음으로 어둠을 쪼면 새끼 부엉이들은 다투어 가장 들뜨고 추임새가 큰 춤을 추어대는 것이었다 그 둔탁한 메아리는 산골마을의 애잔한 피로를 어루만져 씻어주는 자장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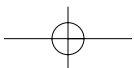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우리 집은 부엉이 둥지에 비하면 수백 배나 크고 화려한 궁전이었다 그러나 해 뜨기를 기다려 나갔다가 해 지기를 기다려 되돌아오며 내가 물어 나른 것은 만성 피로와 부르튼 발바닥 땀내뿐이어서 이미 저마다의 군것질감을 문 아이들에게 아비라는 품은 늘 텅 빈 부엉이집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안에 있을 때는 망각의 집에서 자고 밖에 나가

김규성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서는 추억의 집에서 산다 아른아른 부엉이 울음 끊긴 후부터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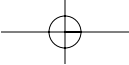


첫 농사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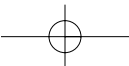
고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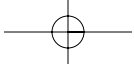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피었다고 다 열리겠느냐

수박은 열두 마디에서,
참외는 세 마디에서
조부 순 자르고
부모 순 자르고
손자 마디에서 열매 맺는
꽃
三代를 기다려
구린내 나는 똥소매를 빨아들이며
백열등처럼 환해지는 발
넉넉넉출 혈맥을 짚어나가던
달디 단 안부가 궁금하다면
아무려나, 시간 따위 뒷짐으로 두고
그때 내 아버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내 할매 그랬던 것처럼



싸목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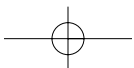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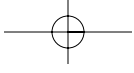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거꾸로!

내 힘들다, 자살

고영서
2004년 광주매일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기린 울음』.

82 경남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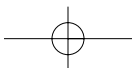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다시 전사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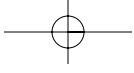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최기종

이제 더 이상 전사가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한다.
민주화된 세상에서 법질서가 지켜지면서
화염병이나 최루탄은 사라졌다고 한다.

이제 피비린내 풍기는 전사들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한다.
독재타도를 외치던 날선 함성도
저자거리를 누비던 발 빠른 전술도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던 용맹도
이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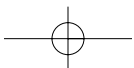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흑자는 투쟁이니 농성이니 파업이니
이런 용어들이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집시법, 도로교통법이 애용되면서
갑오년의 죽창들이 광으로 들어갔다.
기미년의 흰 저고리도, 4월의 깃발도
오월의 혁명도, 유월 항쟁도 흑백사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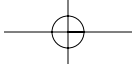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이젠 민주화된 법치주의 세상이라며
더 이상 전사는 필요 없다고 한다.
거리마다 차벽이 세워지고
강이 막히고 밥줄이 위태로워도
어제는 오랜 과거의 과거일 뿐이고
오늘은 법과 도덕이 지켜지는 완벽한 세상이라고 한다.

어제의 전사들이
팔뚝의 문신을 지우고
괘이 들고 망치 들고 서툰 밥벌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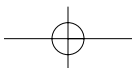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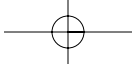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구럼비, 죄짐 받은

아! 구럼비가 터지는 날
바리세인들 1.5톤 폭탄으로
구럼비를 산산조각 내는 날
성경을 읽는다.
마태복음 2장 18절
베들레헴의 어린 예수들이 에돔의 헤롯왕에게 학살당하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아! 구럼비가 털썩 주저앉은 날에
제주도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으니
강정의 깃발들이 구럼비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쓰신 듯이
구럼비, 죄짐 받고 있는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기어오르듯이
구럼비여! 피 흘리고 계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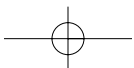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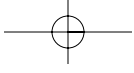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아! 내 몸이 성전이 되는 날에
 40만년을 살아온
 구름비가 못 박힌 날에
 말뚝게도 맹꽁이도 방풍초도 층층고랭이도
 평화의 재물이 되는 것인가?
 아무리 죽여도 되살아나는 목숨으로
 꽃 피고 새 우는 날 기다리고 있는가?
 비를 몰아오는 먹구름처럼
 무겁고 짙은 구름비여!
 검은 연기 피어 올리며
 이 땅을 굳게 다지고 계시는가?

최기중

195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남. <포엠만경> 동인, 교육문예창작회 활동, 1992년 교문창 시집 『대통령 얼굴이 또 바뀌면』으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나무 위의 여자』, 『만다라화』, 『어머니 나라』가 있음. 목포작가회의 지부장.





번쩍, 칼날을 보았다

안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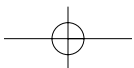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늪은 배롱나무 한 그루
속이 텅 비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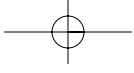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제 찢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낼 줄 아는
배롱나무

자기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은
내 생각 전부가 무화(無化)되는
가장 뜨거운 자세여서

지금도 켹켹하게 푸르른 잎, 잎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 본
배롱나무 커다란 구멍 속
비워냄으로
다 품었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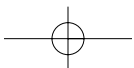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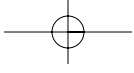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민들레꽃 가부좌로 피어있다

억만년도 한 순간처럼
오로지 삶에 집중하는
저 기괴한 아름다움이라니!

안오일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 지은 책으로 시집 『화려한 반란』, 청소년 시집 『그래도 괜찮아』, 동시집 『사랑하니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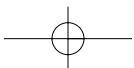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겨울 숲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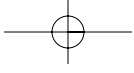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조성국

울울창창한 나무와 나무
나뭇가지의 사이, 앙상한 틈이 생겼다 가랑잎 지듯 비워진
비운다는 것은 그 뉘가
가시를 품었는지 넝쿨 칭칭 감아 돌며 몸통을 조였는지
검지와 가운데손가락 사이 엄지 쭈서 넣듯 욕을 퍼붓는지 또는 연리
지 같은
사랑이 들키기도 하지만
본디 비운다는 것은 시리고 맵찬 일이어서
빈자리로
누군가 끼워줄 간격을 내주는 일이어서
그렇게 빈틈이 많은 나는 별뉘 비치는 좋은 날도 아주 없진 않았다

조성국

광주광역시 염주마을에서 태어나 1990년 『창작과 비평』 봄호를 통해 작품발표를 시작. 시집으로 『슬그머니』 등.





딸

박두규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종일토록 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에게로 와서 텅 비어있을 그 애를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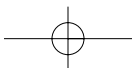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문득, 그동안 꿈꾸어온 방외方外의 시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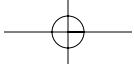
사방으로 흩어져버렸다.

부질없는 일탈의 꿈 한 자락처럼

으스러지도록 거머쥐었던 시 한 편마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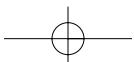
손아귀를 빠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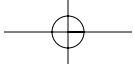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박두규

1985년 『南民詩』 창립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으로 『사과꽃 편지』, 『당물샘』, 『숲에
들다』 등이 있고 포토포엠에세이 『고라니에게 길을 묻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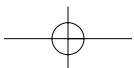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2012' 더 메이 ;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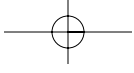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조진태

이팝나무 꽃들이 묻는다 오월은 어디에 있는가
은행나무들이 묻는다 금남로는 그 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저기 저 무등산의 진달래 철쭉들이 고개 내밀어 바라보며
사람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스팔트에 있는가 권좌에 앉았는가,
묻는다

꿈꾸었던 시간은 재빠르게 사라졌다
아니 우리가 꿈꾸었던 시절은
아예 오지 않았던 것이다 없었던 것이다
내가 개똥이면 너는 소똥이었고 우리 집이 다락방이면 너의 집은 안
방이었다 사랑방이었다
쌀을 내면 밥을 지었고 목이 마르면 물동이를 날랐다
움켜 쥔 손은 주먹밥이었다 주먹밥은 빛나는 햇살이었고 별 밝은 밤
이었다

그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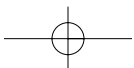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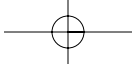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와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은
 흐르는 강물에 떠 흘러 찰나처럼 왔다가 스쳐지나가버린 유성과 같
 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참담한 시간을 견디고 있을 따름인 것
 저 무지막지함을 어떻게 상식의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저 막무가내의 분단을 어떻게 오월의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오월이 묻는다 신록은 어디에 있는가
 금남로가 묻는다 아집이여 분단이여 몽매함이여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내일과 모래 아니 더 먼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땅의 오월들이여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눈부신 새싹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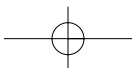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가차없이 다가 올 어느 황홀한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기억을 기억하자
 일순간에 내동댕이쳐질 과거의 낡은 것들이여 현재의 무참한 것들이
 여
 우리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이 참담함을 견디면서 눈여겨보면서
 다시 연 초록의 대지에 우리의 숨결을 속삭이고 있나니
 그때도 오월이었던 것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에서 꿈을 꾸고 있나
 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조진태

1984년 『민중시』 1집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등의 작품 발표하면서 문단활동 시작. 시집 『다시 새벽길』, 『희망은 왔다』.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회원시

나무들 외 1편

김덕우

사람들은 죽어
나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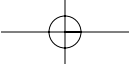
보라, 저 산에도
주변의 길가에도

자꾸 가지를 흔들어 대는
저들의 몸짓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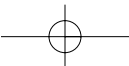
잊지 말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땅 속 깊이 뿌리내린
저들의 사연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형색색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봄

꽃들이 말을 건넌다
옥천 어디쯤인가 지나던 길
그들의 언어는 가슴으로부터 생겨났다
세상에 향기 없는 말 어디 있을까
지나는 누구든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속삭임 세상에 온통 꽃물 들이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설 새 없이 하고 있었다

회원시

봄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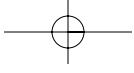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김명우

안개비가 내리고 있다

태봉산으로 오르는 길목
목을 길게 뻗 전신주에 개나리 5길이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엔 땅속깊이 뿌리를 내린 낡은 표지판이
『정상 1.9km』를 끌어안고 서 있다

공중파에서는 며칠째 같은 말만 내보내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구는 몇 달째 계속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울한 날들이 출근길을 짝 메우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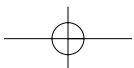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지구는 안개 속에서 하체가 벗겨지고 있다 해가 가리워 진 동방의
가난한 공산주의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아
메리칸 드림은 온난화로 하여 녹아내리고 제우스가 떠나버린 그리스
의 여자들이 검은 장미를 가꾸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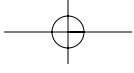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티비를 빠져 나온 사람들이 우울한 표정들이 골목으로 들어선다
안개와 골목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른다
간신히 매달려 있는 개나리 5길 사람들이
골목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정상 1.9km』를 향하여 오른다

-우리는 가난한 날들을 데리고 언 채로
땅속깊이 내려간 지난겨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태봉산 자락에
늘어 진 안개 사이로
비가 내리고
오래 된 작업복을 걸친 초로의 사내 앞에
개나리 노란 화냥끼,
가슴 섶을 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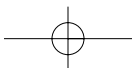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폭우

-F.T.A

몇 년 째인지 모른다
저 대책 없는 흔들림

혼미한 몸 똥아리 가누기도 전에 뿌리 채 덮어버린 고목의 육중한
무게는 마침내 밤새도록 신음하던 깊은 한숨마저 푹 끊어버렸다

절규하던 탄식은 퍼질러진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떠돌다가 잠겨버
렸다 도망칠 곳은 막혔다 방파제는 애당초 노출된 보호막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검으로 치닫는 시퍼런 물줄기위로 허영게 질린 울음
들이 뚱뚱 떠다닌다 통통 부은 맨 손으로 끊임없이 휘젓는 헛손질 언
제까지 계속해야 이 깊은 밤을 피낼 수 있을까



회원시

개구리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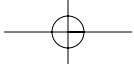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김미연

논바닥이 끓는 듯 개구리가 운다
몰고 가던 개가 목줄을 당긴다
털 고운 조청 같은 달빛이 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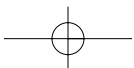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찌적한 눈 한구석이 오로지 제 세상인양
목청을 높이다가 누가 들여다본다 싶으면 전부
입을 닫아 버리는 족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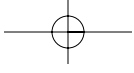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별게 아니라는 듯 개가 지나가자
또 시작이다
희미한 입김에도 그만 조용해지는
목청으로 만 덮인 미끈덩거리는 몸뚱이

목청 뒤에 뒷다리
목청 앞에 앞다리
발이 생기면 뭐하나
풀밭에서 위장하고 있으면 뭐하나



공격 한 번 못해 보고
개의 사냥감이거나 뱀의 밥이 되는





연 두

상림 숲을 거닐 때다

- 색깔 너무 좋다, 아이고 예뻐라,

- 때 맞춰 잘 왔어!

명찰 단 할머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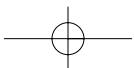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눈을 가늘게 뜨며 드디어 허리를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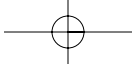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 피, 어제는 더 좋았는디.

난 뒤돌아보지 않고 무뚝뚝 속으로 대꾸한다

새로 아이를 낳는다면 연두라 지으리라

배부른 서른 시절엔 보이지 않던 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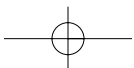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늦게 당도하는 연두
가늘게 눈 뜨게 하는 연두

속으로 너나들이해도 모르는,

오므라든 허리를 피게 하는,

연두

좋다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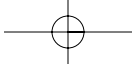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칫솔질 외 1편

김성우

욕망의 찌꺼기에서 발효된 언어는 폐허의 냄새가 난다.

지하에서는 은밀하게 검은 버섯이 자라고 있다. 찬란하게 부패한 네온이 누런 어금니 아래에서 치밀하게 자라온 치석 같은 언어를 빼어들고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운다. 그 치열한 전쟁이 끝날 때마다 깊숙한 냄새를 이끌고 폐수들이 기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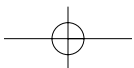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세면대를 밟고 서 있는 거울 속에 언제나 나는 혼자다. 나의 얼굴은 버섯처럼 번들거리고 있다. 은밀하게 번들거리는 입술을 벌리면 냄새들이 별경계 움직이고 있다. 저 놈, 지독한 폐수의 냄새를 바르고 누렇게 서 있는 저 단단한 언어. 욕망의 찌꺼기가 언제부터 추억처럼 박혀 있었을까 하얀 원고지를 짜내어 밤새 칫솔질을 한다 인공의 치약이 폐수의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



우리는 뽕튀기를 좋아하지만 그냥 두지 않는다

동네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뽕튀기 장수 깨알 진 곡식들을 마구 돌려댄다 뜨거운 불로 달구어 그럴듯한 모양이 만들어지면 뽕이요 뽕 몇 배나 거대해진 튀밥들이 눈부시게 날아다닌다

우리는 강냉이며 보리 같은 것들을 들고서 뽕튀기 장수를 찾아가곤 했었다 맛있게 튀겨주세요 누렇게 들뜬 이빨 사이로 군침을 흘리면서 좀 더 크게 좀 더 바삭하게 호주머니 속에 든 굶주림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가 뽕 튀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뽕튀기가 나오면 누구의 것이랄 것 없이 단단해진 이빨로 부셔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의 것이든 재빨리 입 속으로 넣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좀 더 격렬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부셔버린다 빠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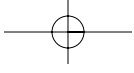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손가락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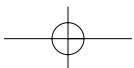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김영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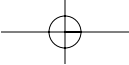
그 누구의 공분이길래
사랑해보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걸 들어선 입술로 빨고 또 빨아
마냥 허기를 면제 받고 있나
언제나 그랬음 좋겠다
좋고 나쁜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도
제비뽑기처럼 걸려들면
잠시만 나의 소유물이 되는 무소유
입에서 입으로 드나들지만
허물도 씹어 삼켜 더럽지도 않아
이 얼마나 다행이나
먹고사는 생명 도구 이렇다는게



공무원

꿀벌처럼
갈취당한 삶 살지라도
노동쟁의는 없어
왕조를 떠받들어 모시고
성(城)을 지켜낼 책무
오로지 그것을 위해
수필의 무노동에도
아랑곳없이
윙윙윙
날갯짓으로





회원시

강정 구림비 외 1편

김유철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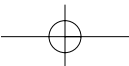
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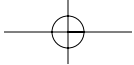
쿵

꽝

쿵

꽝





나무는 통로다

한 그루의 나무속에

강물의 흐름과

별빛의 흐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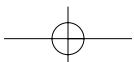
바람결의 흐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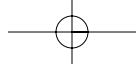
그대숨소리의 흐름과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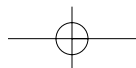
그리고

오래도록 한 그루씩 한 그루씩 나무를 들어 올리며 살아온 땅기운의
흐름이





나무는 통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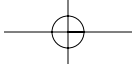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마주하다 외 1편

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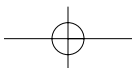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추월하는 버스의 뒷통수와 마주하다
갑자기 나타난 모습에 놀란 심장은
喪中
두 글자 앞에서 껌손해지고
난폭하게 움직이던 차들 이내
장지로 향하는 발목을 잡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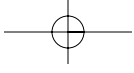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죽음이 양보받는 고속도로
길과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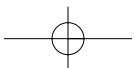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짤짤이 순례

출근길 갈 길 바쁜 많은 그림자 그 속에
무게라는 옷을 입은
거룩한 걸음의 할아버지
순례를 떠나신다
백원, 삼백원 운 좋으면 천원
한정된 구제금을 위해 바쁘게 아주 바쁘게
경로 우대증을 휘날리며 지역을 떠 다닌다
새치기는 거짓 종교자
순례를 하는 자
그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티비에선 계절마다 제철이라 떠드는
맛집이 그려진 지도를 들고
순례를 하는 젊은이들 하나같이
소숫잔과 엄지를 치켜들고
구제금을 나눠주는
구멍 앞의 노인들
하나같이 손바닥을 벌리고 있다





맛집 앞엔 젊은이들은 번호표를 받들고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노인들은
동전이 나오는
그 작디 작은 구멍앞에서
새치기로 한 줌의 염치를 날리고 있다
옥탑방에 앉아 십자가를 내려다보며
전날 얻어 온 하나의 바나나로
채워질 수 없는 허기를 달래며
부디, 제발
억지로 목숨을 꿰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며 기도하는
이 여린 노인은
내일 아침도 해뜨기 전에 일어나
짹짹이 순례를
거룩하게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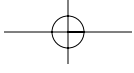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하늘을 뽕뽕 날다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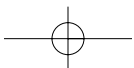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김진희

기상이변으로 꽃들이 뒤죽박죽으로 피고 지는 봄날,
 태어나 처음으로 종기가 나서 그것도 가슴에
 깊숙이 나서 나는 겁을 먹었다 겁먹은 나를
 더 겁주려는 듯 종기는 단단해지고
 몇 날 며칠 버린 끝에 고약을 붙였다 고약한
 종기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그것은
 찌릿찌릿한 고통이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기도 했지만
 이 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난 옛사랑은 찌릿한
 아픔도 견딜 수 없는 가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맞춤법이 틀린 오래된 책을 펼쳐 읽는 것처럼 어색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일.

계단을 오를 때 가끔 무릎이 삐끗했고 인간관계도
 한번씩 삐끗해 한번 싫은 사람은 다시 보기 싫어졌다
 나는 정의롭고 공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부끄럽지 않게는 살고 싶었다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제의는 할 정도였다
 그들에게 의견을 말하는 내 얼굴은 붉어지고



종기에서는 진물이 질질 흘렀다
몇몇의 후배들에게 거절당하고 좌절당한 가슴은
근질근질 고통스러우면서도 찌릿찌릿 가려웠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게 없었으므로 물려준 게
없었으므로 늦은 밤 나는 얇전히 고약을 갈아 붙였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밥상 위 찌개는 뚝배기에 말라붙었고
반찬은 김치에 고추장 같은 고약 한 종지.
괜찮아요, 조신한 후배가 말했다
아, 그러고서 나는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쫓기고
하늘을 뽕뽕 날아다녔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니 하여간 하늘을 날아다니니
기분이 좋긴 좋네



태종대

조개구이 먹으러 태종대 간다 KBS일박이일에 나왔던 집은 유명세를 치르느라 바쁘고 그 옆 포장마차로 간다 비닐천막 구멍으로 바닷바람이 술술 들어와 서늘하다 목소리 걸걸한 아주머니는 옆 자리 갓난아기에 붙어앉아 일손을 놓고 까꿍까꿍, 연탄불에선 조개가 자글자글 밖에선 하늘 한 쪽이 불그스름하게 익고 바다 위 배들은 전기회로도 스위치를 닫는다 기쁘고도 서러운 것이 노을 때문인가 약해진 잇몸에 낀 질긴 조갯살이 근심이구나 포장마차 밖 바다를 나는 자꾸 기웃거린다 어두운 바다 여기저기 배들이 꼬마전구를 밝혀 내 몸도 환하게 출렁인다 별들도 저희들끼리 손잡고 출렁인다 망개떡장수를 불러 망개떡을 사먹고 은박지 조개양념에 밥 볶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먹는다 바닥이 드러난 어둠 하늘에 은빛으로 구겨지는 별, 별들..... 영도구청을 지나 영도를 한바퀴 빙 돈다 바다를 잇몸처럼 끼고 사는 이곳은 기쁨과 서러움이 방향을 바뀌가며 전류처럼 흐른다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300일 넘게 올라가있었던 한진중공업이 어디냐 묻는데 바로 차창 밖이다 크레인도 보인다 김진숙씨의 외로움에 바다가 한 몫 했을거라 생각한다 또 위로와 힘이 되어 준 것도 역시 바다 일거라고 잠깐 생각하며 돌연 나는 숙연해져 조개처럼 입을 다문다

회원시

다시, 찢레 외 1편

노창재

찢레야

찢레야

안찌를께

안찌를께

울지마

울지마

담에 너 보러 갈 땐

담에 너 보러 갈 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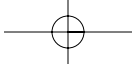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새 옷 입고 갈께

새 옷 입고 갈께

피명이 들어

피명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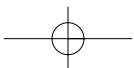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저리도 고운 빼꼭새 울음.



붓꽃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춘수 시인의 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눈길이야 닿던 말 던 저 혼자 이미
외로워져 있는 보라 혹은 하양 노랑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의 내가 아쉬움을 애써 감출 때
심장을 밀치고 가슴 가장자리 저어기 자리를 잡아주던
너는 넓고 부드러운 햇바닥을 붓 삼아
그렇대는 수채화를 그려 주었지

누가 고흐를 태양의 화가라 했던가
론강의 별빛이거나 밀밭을 날으는 까마귀 앞에서
울어 본 적이 있는 나는
꽃 비린내 병그는 네 앞에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또 눈물이 고여
물무늬 자욱이 번져나는 투명의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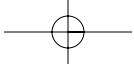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꽃 피는 목욕탕 외 1편

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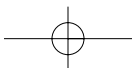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기른 내 손녀가
이제는 다 커서 서울서 이 할매에게 오면
턱밑에서 예쁜 짓으로 놀아주거나
목욕탕에를 끌고 가 몸을 씻어 주곤 하였는데
목욕탕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지
벚꽃들이 한창인 그날에도
이 할매를 이끌고 목욕탕엘 가
무릎에 두 귀가 폭 문힌 아흔이 넘은 이 몸뚱이를 아기 씻어주듯 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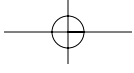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아 그런데

이 기특한 내 손녀를 보고 눈물 흘리던 어떤 고운 부인이 있었지
자기 딸이 생각났는지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던지
내 등을 밀고 있는 손녀 뒤에서 손녀의 등을 밀어 주는 거야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이지
얼마나 마음이 단단히 슬펐겠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게 좋았겠어



그러니 목욕탕 안은 금세 기차놀이 하듯 뒤를 이어
여인네들이 앞 사람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지
장관이었어
거기 모인 여남은 명의 벚꽃여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마음을 올리는 바,
기다리겠대거나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목욕탕 밖에 먼
저 나가 차 시동을 걸고 손녀와 이 할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거
야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는 또 눈물 흘리며 떠나는 거야
고맙다 잘 가라는 인사에도 그저
손만을 내어 흔들고는 천천히 떠나간
그 좋은 눈썹의 부인이 아주 멋지지 않아 시인님들?





조붓한 고살이 눈물로 흐르더라도

막내고모가 내게 들르겠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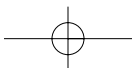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고속의 천도에 쓰일 침향이라도 가지러 오겠다는 뜻이겠지만, 고운
발걸음마다 생각이 남달리 깊은 여인이시니

선대의 할머니에서 할머니 엄마로 또 여 조카들로 이어지는 이 집
고살의 무엇을 더듬어보겠다는 마음이었을 터,

아주까리 서 있던 자리며 장독마다 담겼던 얘기들로 마당을 둘러보
거나

올케언니가 꿰여 주던 생각이 난다며 맑은 아욱국에 수저가 떨어트
니

나는 그이들이 하던 것처럼 대문밖에 나가 어서 가시라 손을 흔들거
나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눈물이 고살으로 꾸역꾸역 넘쳐흐르더라도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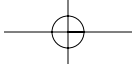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파리지옥 외 1편

박덕선

내가 파리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말이 많다
사악의 이름으로 꽃이 될 때
파리를 유혹하기 위한 세이렌의 노래
파다히 웅성거렸지만

사람들은
파리와의 사랑으로 내 꽃대
더 길게 울던 것에 대해서는 침묵 한다
그를 사랑하여 깊고 깊은
죽음의 잔치를 열고 우리는
눈물도 없이 한 송이 꽃으로 지는 것이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한 생애 파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먹이고
그를 안고 장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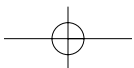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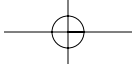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죽이며 나는 오직 사랑했을 뿐이다

자식이 부모를 효도의 이름으로 파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의 이름으로 스미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의 이름으로 발라내는 것
처럼.....

파리는 가장 행복한 지옥에서
깊은 사랑에 빠졌을 뿐이다

지옥이 불행하다고 굳게 믿는 것은
아직도 말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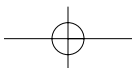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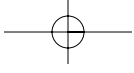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황매산에 가면
모롱이마다 흰 등성이에
남루한 조끼 걸치고 비닐부대 든
일흔 살의 환경보호 할아버지가 있다.

알 하나 밖에 없는 안경으로 흔들리는 산
길쭉 등골나물, 저 혼자 흔들리는 못난 들꽃처럼
사계절을 그렇게
상처 난 돌길이랑, 쓰레기 뒤집어쓴 철쭉
미나리아재비의 뒤를 돌보는 사람이 살고 있다

세상 산야의 모든 안부가 궁금해서
들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추석날 동네길 다듬다가 한 쪽 눈을 잃고
황매산마저 잃어버릴 뻔한 사람

그가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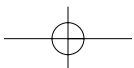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흰 부대 같은 몸을 끌고
 황매산이 안아 올려 한그루 떡갈나무가 될 때
 그 때가 그의 손에 들린 념마집게
 집게 같은 손 풀 물 푸르 푸르 검어진 틈
 새에서도 물매화 한 송이 피어날 것이다

그가 오늘도
 술한 사람들 버리고 간 쾌락의 찌꺼기 남루
 성스럽게 주워 올려서는 보물처럼 부대에 담는다
 그의 동자 속에서 황매산의 들풀들이
 싹을 틔운다 꽃이 핀다

무심히 그가 일어서면
 우뚝 상봉이 두 팔 벌려 안아 올릴 것 같은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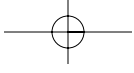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똥 지는 사람 외 1편

박보근

똥은 더럽습니다
집집마다 널린 게 똥입니다
가진 놈들이나 배운 놈들일수록
코를 싸매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이 들판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놈들 알고도 남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싸쥐고 다닙니다.

무겁고 꼰렁거리는
소중한 똥장군을 지고 가는 사람은
저절로 몸을 숙여야 하고
조심조심 지우치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지요.
똥장군 잘 지는 사람이 진짜 머슴입니다.



조문(弔文)

유세차

기축 5월 삭 23일

부엉이 바위에 난데없이 두견이 날아오르더니

한 점

핏빛 울음을 토하고 사라지더이다.

물 첩첩 산 첩첩 청령포 돌아

그 울음 꽃봉오리로 진 영월 객사에서

대왕의 시로 대왕을 조상하나이다.

-원통한 새 한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 잃고 푸른 산을 헤매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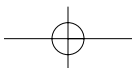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밤은 오는데 잠들 수가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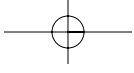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해가 바뀌어도 한은 끝없어라

새벽 산 울음소리 끊어지고 달이 흰 빛 잃어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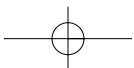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피 흐르는 봄 골짜기에 떨어진 꽃만 붉겠구나

하늘은 귀먹어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서러운 이 몸의 귀만 어찌 이리 밝아지는가-



회원시

얼음 대접 외 1편

박영기

바람에게 머리카락 죄 뜯겨 민숭민숭한 머리통, 떼구루 굴러온 해
골,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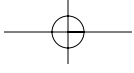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머릿속에 이빨 같은 씨앗 여러 개 박혀 있다.

몇 개는 씹고 몇 개는 살을 악물고

종일 겨울 대청마루에 앉아 골똥한 나를 너는, 모란꽃무늬백자 요강
이란다. 밑을 흘렁 까고 걸터앉아 내 머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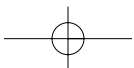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오줌을 누는

털 난 네 입술에 짹 달라붙는다 나는, 물고 놓지 않는다.



일부러

일부러 조개껍질 있는 데로 가고 일부러 조개껍질을 밟고 일부러 발가락을 다치고 일부러 발가락에 피가 흐르게 두고 일부러 피나는 발을 물에 담그고 일부러 다친 발로 물속을 걷고 일부러 오랫동안 걷고 일부러 발이 시리도록 걷고 일부러 깊은 데로 들어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일부러 더 더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일부러 머리가 잠기도록 들어가고 일부러 숨을 쉬지 않고 일부러 물 위에 떠오르고 일부러 물살에 떠밀려 흔들리고 일부러 이마에 갈매기가 앉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가 눈을 쫓아 먹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 두 마리 부르고 일부러 갈매기 세 마리 부르고 일부러 갈매기 네 마리 부르고 일부러 갈매기 무제에 다시 물에 잠기고 일부러 갈매기 발이 물에 젖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 깃털이 젖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 몸이 젖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를 물에 빠뜨리고 일부러 갈매기가 퍼덕거리게 하고 일부러 갈매기가 날아오르게 하고 일부러 없는 눈에 눈물이 나고 일부러 살이 녹아 찐 물에 섞이고



회원시

풍경 외 1편

박현숙

밀양 표충사 길목

해거름의 귀퉁이를 접고 있는 좌판 한 구석에서 고양이 한 마리, 선
정삼매에 빠져든 듯

회색 줄무늬 털가죽위로 모기 한 마리가 뱅뱅거리며 주위를 맴도는
데 손사래도 귀찮아 바닥에 더 깊이 코 박는다 고약스레 얹혀들어 마
음을 다칠까 절반의 저와 절반의 저는 그저 반반의 마음으로 애를 쓰
는 것인데 단지 그 뿐이어서 저러니 정작 저이가 사는 일은 비겁하게
눈 뜨지 않고 참는 법을 배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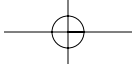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사뿐히 돌아눕다 민첩하게 되돌아 눕는 피곤 사이로 모기, 더욱 당
당하게 바늘침을 찔러 대며 삶을 간섭하는데

어지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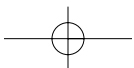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비등점으로 끓어오르는 영혼의 끝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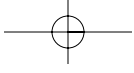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번쩍, 두 눈을 부릅뜨며

온 몸으로 길을 잡아 일어서고



여름 한 철 근엄했던 느티나무 단숨에 붉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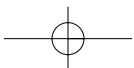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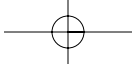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꽃으로 피는 시간

캔버스를 앞에 두고
뭉긋이 앉아
자신과의 약속 같은 시간들을
덧칠하고 덧칠하며
꽃모종을 옮겨 심던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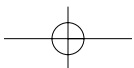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폭식하듯 읽고 나면 허전할까
아껴가며 읽는다는 그녀의 손끝에서
꽃봉오리, 꽃잎이 하나씩 열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
저처럼 이면 좋겠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약속 같은 것이 되어
여린 햇살 속에서도
대궁을 밀어 올리게 하는 힘





한 송이 꽃부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꽃물이 들던
봄날 저녁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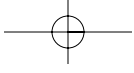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새벽녘 잠에서 깨어 외 1편

양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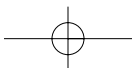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적도나 북극의 어디쯤에서 아침을 맞고 싶다
 단 한 시간도 발붙이고 산 적 없는
 열대의 땅, 흑한의 도시에서 미지(未知)의 전생처럼
 사과 한 알로 지구에 떨어져
 풀잎에 맺히는 이슬 한 방울로 아침을 맞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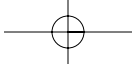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나뭇가지만 남은 미루나무는 달빛으로
 뒤뜰 가득 쌓인 빈 소주병들을 내려다보고 있네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대중목욕탕 들어서던 날
 사람이나 길에는 무지개가 피어올라
 현기증을 앓았다 새벽녘 문득 잠에서 깨어

아르바이트가 신문 돌리러 나서는 오토바이소리 듣는다
 빙하의 땅 아니면 불별의 하늘이라도 좋겠다
 더 추운 결빙의 바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처음 만나 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미 오래된 전설로 한 평생 살았으면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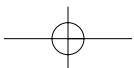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어디에서나 이별의 손, 환영의 손 흔들고 싶은 새벽
청소차 다녀가는 소리 들릴 때, 혹은 오늘 하루 생업 생각하며
어제의 일들 곱곰 헤아릴 때, 저승이나 더 먼 아메리카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사막, 그 보다는 더
지구의 바깥으로 나가 아침을 맞고 싶을 때 더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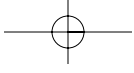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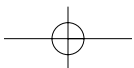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밤마다 초원을 찾아 말을 달린다

생각해보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유목민의 후예
 고향 떠난 지 너무 오래 되어 발걸음 뒤척이며
 잠드는 마을로 돌아와 어두운 하늘 쳐다보네
 별들이 소곤대는 밤이 오면 침상에 걸터앉아
 갈기처럼 상상의 머리카락 휘날리며 찾아가는 유라시아 대륙
 별판의 어느 정겨운 언덕을 찾아
 마음은 말을 달린다
 어찌다가 간간히 휴대전화가 울어
 술 취한 벼들의 느닷없는 안부에
 갈 길 잃고 잠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밤은 꿈꾸기에는 넉넉하고 꿈꾸는 시간으로는
 아침이 올 때까지 충분하다
 때로는 임진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기 전
 화해와 통섭의 언어로 사려 깊은 눈길 허공에 던지며
 낮에 만난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눌 때도 있지만
 빌딩 숲이 창궐한 골목길 빠져나올 때쯤에는
 저마다 목이 칼칼해





몇 잔의 자리끼로 냉수 별컹별컹 들이키기도 하네
가야할 곳은 언제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 이마에 주름살로 박힌 아득한 고향의 하늘
시원의 별판 유라시아 대륙의 어느 정겨운 언덕 위
기둥마다 서까래마다 미소를 배시시 머금은 집
정원에는 사시사철 채소며 풀이며 온갖 것의 꽃이 피어
아내와 가족들이 정성들여 아침밥상을 준비하는
초원을 찾아 우리는 침상에서 말을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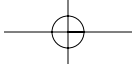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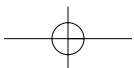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도시의 밤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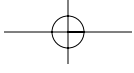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예시원

네온싸인이 야성의 눈빛으로 번뜩이는 거리
 술은 술 술 술 흘러 도시 전체가 취한다
 아스팔트마다 헬프 미를 외치는
 처절한 몸짓
 보도블록에 빨래처럼 축축 늘어진 시체들
 유리벽 사이를 두고
 안쪽엔 여전히 지글거리며 떠도는 유증기들
 고소함과 느끼함이 범벅되어
 뒤집힌 고기가 쓸쓸한 밤을 태우고 있다
 껄껄 웃으며 열변을 토하는 사내
 흘쩍이는 가시내
 구석진 곳엔 글 읽는 선비처럼 흔들거리는 사내
 모두가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저마다의 밤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봇대에 기대어 한 많은 생을 토해내는 사내
 눈물콧물 범벅되어 야속한 님을 그리워하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세상과 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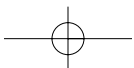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흔들리는 도시를
휘영청 밝은 달은 말없이 바라보고
별무리 은하수는 네온싸인을 쓸쓸히 내려다본다
광란의 밤은 현재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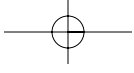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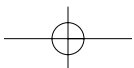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바람에 깡통 굴러가던 날

너털거리는 포장마차가 그리운 날
바람 부는 언덕에서
오래된 풍차가 바람을 맞고 있다
지나간 옛 그림자를 떨쳐내며
바람 불어 좋은 날
사내가 행하니 찬바람을 맞고 있다
거리엔 쓸쓸한 고독만이
밤길을 가득 채우고
오늘은 왕창 취해 망가지고 싶다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아 멈추라고 욕지기를 해 댄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빈 깡통만 요란한 소릴 내고
두루마리 휴지가 저기서 여기까지
옷을 벗고 바람을 먹고 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낙엽도 떨어지고 깡통도 굴러가고





휴지는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풀어진다.



회원시

간벌 외 1편

오삼록

잘려진 나무를 보면
뿌리를 움켜쥔 손이 안쓰럽다
다행이
정리해고에서 살아 남았다 해도
그들은
팔다리 없는 몸뚱이였고
상처 입은 가슴의 기둥이 없다

줄 세워 톱질하는
간벌꾼
그들은 옮겨 심어진 작은 나무

주저앉은 무더기
일없이 모인 가지 아래선
산짐승도
집을 짓지 않는다

목수

아버지는
외눈으로 먹을 놓는다
하늘 가까이 발을 걸고
무성하신 눈썹을 닦는다
바람 찬
뜰에 있는 햇살
방 속에 담기 위해
못을 박는다
푸른 산 골짜기에
살고 있을 메아리 찾아
크낙새 둥지 짓듯
못을 박는다

회원시

밀밭의 역사 외 1편

원종태

뒷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어젯밤부터 저 밀밭하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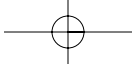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바람과 밀밭이 관계하는 것이 궁금했지만 그 소리가 금속성이어서 사뭇 안타까웠다.

때문이었을까 휘파람새가 추임새를 넣어주고 별은 더욱 총총해지는 것이다.

또 밤, 사람이 내려와서 매달아둔 보리밥을 털어먹는 날도 많았다 한다. 개들도 짓지 않는 밤이었다.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는 날이면 달려가 숨기도 했던 밀밭이었다. 썩아한 풋내가 서러웠다.

초록의 바람이 맥을 탁, 놓고 사위어 가면 산뿔 새끼들이 쿵쿵쿵 튀어나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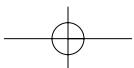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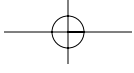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바람의 언덕*

밤새 폭풍우치다
바다와 바람이 관계하는 소리가 팽팽했다
그 소리의 크기와 색깔, 냄새에 대해 여행자들은 각자의 수첩에 기록할 터이지만,
바다의 뿌리까지 짚어내고야 말겠다는 열애의 끝
세상이 열리고 푸른 언덕 하나 솟아있더라

저 염소는 바람의 아들이거나 딸일거예요
세상은 유형(流刑)이 아니면 유랑이지 않을까요

꼭
사랑했다
정말로
안아줘
외로워요
헤어지자
말들이 바람의 칼날에 잘려서 어지럽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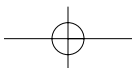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실연당한 바다가 허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날려보내며 어깨를 들썩
일 때

그래, 세상은 별 것 아니다
절벽에 흰 고무신을 벗어놓았던 해당화
바람의 발목을 잡고 기어오르고 있다

*거제도 해금강 입구 도장포 마을에 있는 작은 언덕,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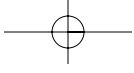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카를 요한의 봄날*에 칠하다 외 1편

이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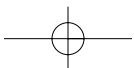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그림에 빗줄기를 덧칠한다.
비에 젖은 나무의 그림자가 자라난다.
양산을 쓴 여자들의 드레스가 젖는다.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몽크의 우울한 표정 위로 비가 내린다.
대접에 받아놓은 물이 마르도록 비를 칠한다.
붓모가 몽당이 될 때까지 비를 칠한다.
푸른 색 지붕이 투명해질 때까지 비를 칠한다.
등돌린 여자의 외로움이 가실 때까지 비를 칠한다.
내 가슴이 젖어들 때까지 비를 칠한다.
젖어든 나의 눈물을 찍으며 비를 칠한다.
상한 그림을 보고 몽크가 '절규' 한다.

*몽크의 그림 제목 「오슬로 칸 요한의 봄날」에서 따옴.



악양면 미점리 개치 370번지

옥숙이 간다. 승용차 타고 옥숙이 집으로 간다. 낡고 흰 경승용차 타고 옥숙이 집으로 간다.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개치 370번지로 옥숙이 간다. 갑자기 여동생이 죽어 스무 살 넘어 막내가 되어버린 옥숙이, 옥숙이 집으로 간다. 할머니와 혼자인 오라비가 잡초더미 속에 묻어 둔 사연이 풀앞에 사운대는 곳, 옥숙이 집으로 간다. 두런두런 들려오던 미숙이 미경 언니 수다 소리와 여름밤 평상에 누워 함께 따던 녹슨 별들. 옥숙이 집으로 간다. 개치 370번지, 서늘해진 바람 창으로 스며드는 별판을 지나, 옥숙이 집으로 간다. 동구에서 짐짓 올려대는 경적 소리에 앓아누운 아버지가 헛기침 하고, 죽은 동생이 살아오고, 오빠의 노랫소리 씩씩하게 들려오는, 옥숙이 집으로 간다. 잉겔 불에 고구마 굽던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는,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개치 370번지. 알밤이 말줄임표로 투둑투둑 떨어지는.



회원시

낙동리 강물 외 1편

이월춘

제 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저 혼자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아도
강풀잎 한 장이
그 알 수 없는 소용돌이의 눈동자로 흔들리면서
달비린내 풍기는 저녁별로 뜨는 날까지
구불텅구불텅 다 데불고 간다 강은
동네 풀머슴 한수의 땀 땀 구구단도
작년 장마 물귀신에 처자식 앞세운 장동아재
원내 나는 난닝구도 다 안고 간다
마음이 만든 길 하나 없어도
이제 아는 사람 하나 없어도
눈 감으면 금세 강둑의 위낭소리가 들리는 곳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 그 다음엔
멀지만 그윽하게 다가오는 설렘이 있겠지

복기(復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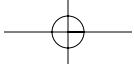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어머니 하고 부르면
슬픈 풀냄새가 납니다
사월의 대낮
누런 허기의 바람 속에
꽃보리 까끄레기 같은 가난이
허허롭던 어머니의 작은 어깨를
그냥저냥 누르고 있었지요
다시 어머니를 부르면
눈물 머금은 달이 하나 마중을 나옵니다

회원시

천장크레인 운전공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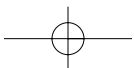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이한결

주입하던 쇳물 불량났다 경위서 쓰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출강 대기 잡혔다
 안전사고 났다 징계 받고
 점검하던 주행 축에 다리가 말려들던
 지상 15미터 천장크레인 운전공
 쇳물주입작업에서 슬래그포트 교체까지
 한 번 시작하면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운전실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똥을 누고 둘둘 말아 래들*에 던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굴욕 껍꾹 눌러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반장 횡포 더럽다 사표 던진 권수철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되었고
 크레인 운전 미숙하여 17년 밀려다니던
 차종열은 뇌출혈로 쓰러졌다
 빼끗하면 저승으로 추락하는 고공직업
 노동자는 참을성이 없어도 불행이고



참을성이 지나쳐도 위험하다

* 래들 : 씻물을 받는 용기. 래들에 씻물을 출강하여 제품케이스에 주입한다.



노란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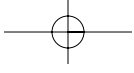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라인단위로 쪼개고
공정단위로 쪼개고
우리는 기어이 용역사원이 되었다
무슨 기업 무슨 산업 무슨 엔지니어
작업복 안전모 색깔은 노란색
월급명세서 넣어주는 노란봉투
우리의 삶은 노랗다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었다
학자금 성과금 없이
임금은 정규직의 40%
정규직 톨루탈라 5일제 근무할 때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하고
특하면 생산 대기 잡혔다 불량냈다
경위서 써라 시말서 써라
새파란 정규직에 천대받으며
노랗게 찌들어간다

회원시

하루살이 외 1편

장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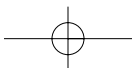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교실에서부터 날 미행했는지
옷을 벗자 툭 뛰어나오는 녀석
너무 작아 무릎 꿇고 들여다보아야
겨우 보이는 남은 시간을
악착같이 버틴다.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진다
그래, 그래 살아보자.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지만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세워 악착같이
밥상을 차리고 물리자
저도 나를 따라 밤새 동동거린다.



꽃바구니

스승의 날에 왔던
꽃바구니가
오늘 쓰레기통 옆에서 말라간다.
이렇게 나를 통해 잊혀져간 사랑이여,

미안하다



회원시

무덤 한 채 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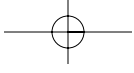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정기석

파란 하늘에 하얀 무덤이 둥둥 떠다니던 어느날
냉큼 포충망을 들고 마당으로 뛰쳐 나갔다
동네 아이들이 한치 앞만큼 더 빨랐으나
쓸만한 무덤 한 채를 겨우 채집했다

일단 부동산으로 등기해 놓았다
당장 생활의 기술로 써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누라 보라고 곧 불어닥칠 노후를 걱정하는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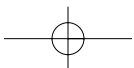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떠돌던 무덤을 붙들고 물조리로 물을 주니 풀이 자랐다
곧 억센 뿌리조차 물구나무로 솟구쳐 올라
끝내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좌불안석을 살살 간질이는 지경이 됐다
옥황상제 채통에 킁킁거리지는 않았지만
낮은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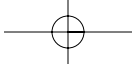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이제 여생은 무덤 한채로나 살았으면
송두리채 재개발되는 마을의 골목길 담벼락이었으면



그 담벼락에 마치 우연인듯 묻어있는 낙서였으면
전 생애가 까짓 뜬소문이 된다해도 상관없을듯
주소나 정처가 없는 무덤으로나 실컷 떠돌았으면

땅 위에 잿빛 그림자로 기어다니는 석회질 갑충일 바에야
차라리 하늘에 둥실둥실 떠도는 하얀 무덤의 자유가 낫지
그것도 순결한 하얀 빛깔이니 백번 낫지, 낫고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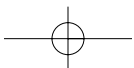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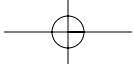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오래된 편지

오랜만이에요
살아있을 줄 아요
죽었을 리 없을 것어요
지난 시간은 죽을만큼 길었으나
차마 죽기에 충분치 않았을 것어요
홀로 떠날 야속한 사람도 못 되요, 당신은
그토록 깊고 고요한 사람이에요, 그대는
다만, 미안하오
이미 죽고 없소, 나는

기다림의 먼지가 쌓여
절망의 태산이 되던 어느 날이었소
그리움에 지친 나의 숨은 불현듯 멎고 말았소
부디 오해는 마시오
비겁한 자살이 아닌 것은 분명하오
잘 알지 않소, 내 사랑을 그토록 겪어봤다면
죽을까봐 죽을 것 같은 사랑을 멈추고 만 사실





당신이 없는 저승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실

말이라곤 오랜만에 꺼내 보오

이토록 부끄러운 말이오

미안하다는 말 말이오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말 말이오

거기 늘 혼자 두어서 뼈 끝까지 아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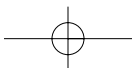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당최 이 말같지도 않은, 거지같은 말 말이오

그래서 말은 이만 줄이오

저승에서 이승으로 타전하는 말은 늘 부서지고 흩어지오

다만, 마지막 말이오

슬픔을 조심하시오, 제발



회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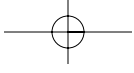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전설의 고향 외 1편

정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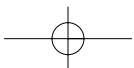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요즘은 십년 전의 일도 전설이 된다
아기귀신이, 처녀귀신이 어른귀신이
나오던 전설은 고향을 잃은 지 오래,
고향엔 초가대신 아파트가
깊은 산 속 숲속이나 개울이 아닌
공원의 가로수나 분수가 고향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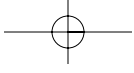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전설은 해를 지날수록 변했다
저승사자는 아이들의 선생이 되었고
죽은 아버지는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다
아이는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었고
아내는 전설 속에서 바가지를 긁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그네를 밀었다

전설속의 나는 희망이 가득했으며
죽은 시인에게 이메일로 안부를 물었고
한번쯤 귀신이 있을 거라 믿기도 했다



십년 후 만들어질 전설을 걱정했으며
운명의 살점을 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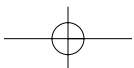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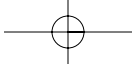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노동시의 즐거움

노동자 시인이 많았던 시절은 가고
여러 경향의 시인이 많은 시대이다
노동자 시인들 모임의 행사에 참가해
술과 밥 얻어먹고 노래방까지 가려
동료 시인의 차에 올랐다

차는 시인이 아끼던 것이었지만
낡고 오래된 거였다
속칭 ‘기계차’ 였던 시인을 닮아
문이 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
문을 열던 연로한 시인이 대뜸
‘이 차에 구리스 이빠이 쳐야겠네’
라고 외치자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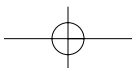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노동시를 쓰던 이들 시의원이 되고
대기업 노조의 간부가 되기도 했지만
근래에 늘어난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과 복지 외치는 시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곳곳이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는 시인들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진리는 많다



회원시

언중유골(言中有骨) 외 1편

조 민

뼈를 판다

서점에서 편의점에서 뼈를 판다

광대뼈가 푹 볼거진 여자가 통뼈 여자가

뼈로 짠 스웨터를 입고

통뼈를 판다 갈비뼈를 판다 뼈 부스러기를 판다

호피무늬 찍힌 뼈가 털구멍이 숭숭 난 뼈가

주름이 겹겹이 쌓인 뼈가

책처럼 꽃혀 있다

빵처럼 쌓여 있다

전자렌지에 2분 데워 드세요

빈 그릇은 이곳에

구멍도 없고 골절도 없고 골수만 많은 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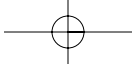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누구가의 옆구리도 한번 찔러 보지 못한 뼈가

누군가의 헛바닥에서 썩고 있을 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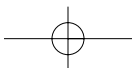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가격표를 이마에 붙이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마네킹처럼 팻말처럼 서 있다



해골 세트 갈비뼈 세트 골반뼈 세트 쇠골 세트
뼈가 뼈를 사고 뼈가 뼈를 판다
뼈다귀를 입에 물고
뼈 없는 얼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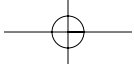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아름다운 나의 엄마 기계

셀 수도 없지
내가 버린 엄마 눈알은
셀 수가 없어 찢어버린 엄마 손목은
잘라버린 엄마 발목
괘매버린 엄마 헛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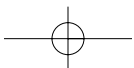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기어이 부숴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걸 준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우 우우우 우 우우우 우 우우우우

아프지도 않지 죽지도 않지
엄마 심장은
변기에 버리고 불에 태우고
망치로 깨부숴도 너무 뽕뽕하지
너무 말짱하지
엄마는, 엄마 배꼽은



아, 돌보지 않는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람아
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버리고 버려도 다시 생겨나는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엄마, 나는 기계지
나는 아름다운 엄마 기계지



회원시**일출** 외 1편

한선미

이러저러한 찌들림을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장갑 끼지 않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꿈틀대는 이것은 무엇인가. 끄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아. 묵은 기억 하나가 거기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 그래, 이 냄새였어 어떤 것도 아닌. 냄새를 따라 가다 바다와 만났다 바다는 가까이 있었다 옷 구석구석 찌들림을 털어버렸다

머리를 디밀어 꾸역꾸역 기억을 밝고 일어선다

아내는 빨간 구두를 꿈꾼다

거울 앞에서 아내는 화장을 하고 있다 눈썹이 짙어지고 입술이 선명해지고 홍조를 띤 얼굴. 머리를 빗어 넘기고 크게 한 번 웃음을 머금고 나면 빨간 구두를 신고 문을 나서는 아내

아내는 빨간 구두를 좋아한다 외출할 때는 빨간 구두를 정성껏 닦아 신는다 신발장을 열면 흐드러지게 핀 빨간 구두가 셀 수 없이 많은 눈이 되어 나를 노려보고 있다 질식할 것 같은 찰나. 신발장 문을 닫는 손 떨림

아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난다 나는 알고 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내는 새로 사온 또 하나의 빨간 구두를 신발장 안 제 자리를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지 빨간 구두는 왜 그렇게 사오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신발장 안이 더 이상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때 아내는 내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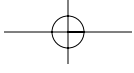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회원시

등허리 외 1편

한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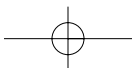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아버지 나를 업어 주지 않았네.
등에는 매일 쌀가마니 소금가마니
좀 더 크고 나서는 맥주상자 음료수상자
집에 와 누운 아버지
나보고 등허리에 올라 서라고
꼭 꼭 밟아 달라 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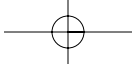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납작 엮드린 아버지
등허리 허벅다리 장판지
장판지 허벅다리 등허리
괜찮타, 더 힘껏 밟아라,
아버지가 시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네
주먹 쥐고 쿵쿵 두들겨대던
그 넓적한 등허리에서
사이다상자 소주상자 모조리
치워버리고 싶었네.



무서운 아버지
 술을 먹은 아버지
 밥상이 날아가고
 김치찌加里 처박히고
 깨진 그릇을 줍다 피를 보았네.
 더 이상 뺄 수 없는 아버지
 술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담배연기 폐 속으로
 박혀버린 아버지
 아, 늙어버린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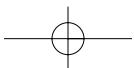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이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부르는 이름
 에미야, 나 괜찮타, 아주 편하다,
 붉은 흙 속으로 들어가던 날





등허리 반듯이 펴서 누우시던 날
달디단 신음 소리 나는 들었네
끄 - 응 - ,
흠이 따뜻하게 품어 주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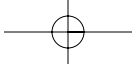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햇볕 잘 드는
봉긋한 房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바람 잘 통하는
아늑한 남향 房
아궁이에서 지핀 불이 방고래로 타고 들어
구석 구석 군불 돌아들어
허리 지지기 딱 알맞은
아버지의 땅
한 평.



엄마하고 꽃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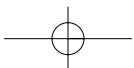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아가,
저 꽃들이 나를 숨 막히게 하는구나.
여리고 고운 이파리 하늘 하늘
내 속살도 저리 새하얗 때가 있었어야,
수줍어 눈도 못 뜨고
발짱게 달아오르던 때 있었어야,
바람 한 번에 우수수 지고 마는
이 꽃천지, 이 별천지,

아가,
쉬었다 가자.
니 아버지 가신 길이 저런 길이 아닐까
한 세상 고단하게 살아내신 양반
꽃 길 걸어 훨 훨
고개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어야
참말로 순간이고 말았어야



마음은 둥 둥 떠오르는데
다리는 천 근 만 근 가라앉누나
더 오지 마라네
이제 그만 내려 가라네

아가, 한숨 쉬지 말아라.
네가 바로 저 분홍 꽃잎이고
꽃 지고 난 자리에 돌아나는
푸른 이파리인 것을
지금은 모르는 게야,
靑春은 짧고
짧아서 저리도 아름다운 것을,



수필

고사리, 참 묘한 식물이다.

박래녀

며칠 사이에 고사리보다 풀이 더 빨리 자란다. 자람을 딱 멈추어버린 고사리 발 같다. 자랄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활짝 피어버린다. 갈색 발에 핀 녹색 꽃처럼 아름답다. 노지에 심은 옥수수가 냉해를 받은 것이 눈에 띄는 만큼 고사리도 잔뜩 움츠린 자세다. 꼭 오월 말에 꺾는 고사리 발 꼴이다. 우리만 그런 가 했더니 고사리 농가는 비슷한 모양이다.

고사리는 특성상 비탈을 타고 오르는 버릇이 있다. 산에 심은 고사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란다. 굵고 쪽쪽 뻗어 오르긴 해도 지난해에 비해 소출이 반 밖에 안 된단다. 윤삼월이라 그럴까. 아직 땅 심이 더워지지 않아 고사리 싹이 움츠리고 있다는 뜻일까. 고사리가 갑자기 확 솟아버렸을 때 땅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를 다 뽑아 올려버린 것인지. 오늘 고사리는 전반적으로 자잘했다. 한 번은 굵고 한 번은 자잘하니 감을 못 잡겠다. 땅속에 묻힌 씨눈을 파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씨눈이 굵고 실하면 다음 번에 꺾을 고사리는 전반적으로 굵은 편이다.

올해는 고사리 물량이 지난해 반 밖에 안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지난해보다 고사리 발 면적이 많이 줄었지만 고사리 밭아율이 전

반적으로 저조하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잔 고사리가 많아 고사리를 꺾는 할머니들도 신명이 나지 않고 나도 지친다. 날씨마저 우울했다.

“비 온다고 했어?”

“일기예보는 비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어째 수상타. 다리가 쑥쑥 아리고 무겁은 기 아무래도 날긋이를 할랑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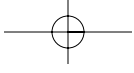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아직 4월 고사린데, 고사리가 자잘해서 속이 상한다. 마음 같아서는 올해 고사리 농사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잘하게 솟아난 고사리를 꺾을 때마다 든다. 이걸 꼭 꺾어야 하나. 그러다가도 이게 우리 주 소득원인데, 고사리 농사 지금 포기해버리면 아이들 뒷바라지 어떻게 하며, 생활비는 무엇으로 해결하나. 앞이 캄캄하다. 지금이라도 비료를 슬슬 뿌리거나 영양제라도 치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남편이 들었다면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야 깨닫는다. 농사꾼이 비료를 즐겨 쓰는 마음이 이래서구나. 곡식이 제대로 안자라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어떻게든지 곡식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영양이 적으면 영양을 보태야 하고, 물이 마르면 물을 대 주어야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미치고 팔짝 뛰겠네. 고사리야, 너거 올해는 왜 이러냐? 우리 좀 도와다오. 너희들 시험하니? 어떤 때는 굶고 많이 올라와 나를 행복하게 하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고 싶은 모양이지? 너거들 진짜 확 알아엮어버리고 싶다야.”

고사리를 향해 성질을 버럭내며 아우성을 치자

“아이가, 고사리야 예쁘다. 참 예쁘다. 해야 잘 큰답서. 그리 멜쿠모 올라오다 놀래 주저앉겠다.”

옆에서 고사리를 꺾던 할머니가 한 마디 하는데 금세 고사리에



게 미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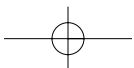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그렇지요? 고사리아, 미안하다. 진짜 좀 굵게 쭉쭉 뽑아 조라. 우리 할매들 심 좀 덜 들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속으로 불만이 터진다. 얼마나 더 사랑을 쏟아야 고사리가 내 마음을 알까.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큰다고 한다. 그만큼 주인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있어야 곡식이 제 값을 한다는 뜻이겠지만 우선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예쁘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성질 같아서는 확 밟아버리고 싶을 만큼 화증이 나는데 어찌란 말인가. 올해는 고사리 꺾을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고사리 받아올마저 형편없이 떨어지니 우리 집 단골에게 고사리를 다 공급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딱 막판 고사리 풀이네.”

남편도 기가 차는지 혀를 찼다. 오월 중순까지 꺾은 고사리가 오살이다. 유월에 꺾는 고사리는 늦 고사리다. 올 고사리와 늦 고사리의 차이점을 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 고사리나물을 해 봐도 맛이나 향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고사리가 굵고 약한 것일까. 올 고사리는 아무래도 늦 고사리보다 굵은 편이다. 차이점이라면 굵고 잔 것밖에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찌된 셈인지 첫물 고사리부터 자잘하다. 환장할 일이다. 물론 먹는 사람은 굵은 고사리나 자잘한 고사리나 상관없다. 진짜 고사리 맛을 아는 사람은 굵은 고사리보다 잔고사리를 찾는다. 자잘한 것이 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으니까. 나도 굵은 고사리는 물경한 맛이 싫어 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는 자잘한 고사리를 선호한다.

“너무 그라지 마소. 이 꺾사리가 진짜 맛있으께. 지난 분 우리 옆집에서 사 간 꺾사리 그 할마이가 벌써 해 무 봤다요. 꺾사리가 맛있더마. 그리 잘지도 않고 딱 먹기 좋다더마.”



그렇게 말해 주시는 할머니가 고마울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떤 고사리 발은 고사리가 자잘하지만 어떤 고사리 발은 또 굵어서 굵고 잔 것이 구색을 맞추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잔편에 속한다. 다음에는 또 꺾기 좋은 정도로 좋은 고사리가 솟아줄지. 희한하게도 한 번 잘면 한 번은 굵게 솟는 것이 고사리다.

“할매, 너무 잔 것은 그냥 버려두고 손 안에 잡히는 것만 꺾어 보이쇼.”

“아이가, 그람 잔 거는 우짤라고. 내일이모 활활 피 뻗긴데.”

“다음에 꺾어 내버리면 오늘보다 수월하지 않을까요?”

“잘아도 피사리는 피사린데 아까운 걸 왜 피아 빼요. 우리가 할 테니 아지매는 가서 커피나 한 잔 타 오소. 비가 올라는 지 다리가 천근이라 커피라도 무야 심이 나겄소.”

촌 할머니 모두 커피 중독잔가 보다. 오전 새참 때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은 필수다. 오늘 점심 때 깜빡 잊고 커피를 챙겨오지 못했더니 커피 가지고 오라고 성화다. 오후 새참으로 매실액을 먹기 좋게 물에 타서 병에 담고, 쓱떡을 챙겨 왔는데 꼭 커피 한 잔을 해야 하겠다는데 어찌랴.

결국 나는 고사리 망태를 밭골에 던져 놓고 집으로 향했다. 고사리 향기에 배인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도 진한 커피 향에 취해 볼 참이다.

단편소설

페달의 꿈

민기

나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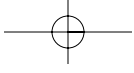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나를 지배하는 발인가 나 자체의 구동력인가? 이 물음에 골몰할 즈음 난 파괴 되어, 용광로 속으로 빠져 다시 탄생될 운명이었다.

탄생

거듭남 그것은 꿈이었다.

나의 몸은 잘게 부서진 채로 영혼이 찢기어 나뉘듯, 조각난 쇠가 되어 용광로 속으로 빨려들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었다. 이곳은 쇠끓는 소리로 요란했고 난 가볍게 탄생 되어졌다. 천장 크레인에 메달리어 기름칠과 나사조임이 끝난 후 설계자의 의도대로 내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난 꿈을 꾸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멋있게 달리는, 그 꿈의 속도에 황홀해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꿈이었다. 아주 황홀한…… 나의 바퀴는 두 개 뿐이었고 엔진마저 없는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



쇠 끓는 광장에서 벗어나, 또 다른 광장에 슬프게 버려진 채 난
이 광장을 지키고 있다. 가끔씩 폐달이 밟히길 꿈꾸며……

아픔의 광장

이 아픔의 광장은 노을만큼이나 고요하다. 가끔 엔진이 달린
나보다 큰 바퀴가 묘기를 보일 뿐 난 아직 네 개의 바퀴를 단 차
를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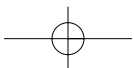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그렇게 지루한 시간은 흐르고 나의 영혼이 녹슬고 있을 쯤, 놀
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곳에 아픔의 광장에 환상의 극장이 들어
선 것이다. 그 사건은 수많은 자동차를 끌어들였고, 나의 꿈이었
던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멋진 사건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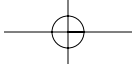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그들의 몸은 갑옷으로 무장 되었고 튼튼한 네 개의 바퀴덕에
넘어지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이 내 눈앞에서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꿈은 존재하
는 법, 자전거의 엔진달기와 비행기의 우주 밖으로의 이탈, 허나
이룰수 없는 꿈도 있는법, 파괴되어 우주를 뒹구는 비행기처
럼……

아픔의 광장에서 갑옷의 꿈을 만나던 날 난 엄청난 사건으로
함몰하게 된다.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이뤄지는 것을……

화창한 날의 지하

왜, 모든 멋진 일은 화창한 날에 일어나는가? 멋진 갑옷은 녹
슬고 있는 나의 꿈을 일깨움과 동시에 드링크에 실려 어디론가
떠났다. 나의 시야를 가린채…… 한참 후 내가 도착하게 된 곳은
지하의 어두컴컴한 주차장이었다. 이 곳의 생활은 어둠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 어둠에서 비껴나는 시각에 나의 폐달은 저어졌고





난 세상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

갑옷의 비밀

“이 곳의 등장은 기적이야. 아니 기적은 무슨 그저 중독된 뇌에 의한 엔진의 굴림이 있었을 뿐.” 처음 들어보는 독백에 가까운 철갑의 말이였다.

‘뇌에 의한 바퀴의 굴림이라니’ 그랬다, 이제껏 그들을 움직인 건 뇌를 가진 또 다른 차원의 생명체였다. 난 그들 스스로에 의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슬픔의 밤이 지나 세상의 경계선인 새벽이 오면 뇌에 이끌려 그들은 어디론가 떠난다. 그리고 경계선 아래의 세계가 도래하면 그들은 돌아온다. 나 역시 꼬마뇌에 이끌려 학교라는 뇌의 성장을 돕는 집단광장에 머물게 된다. 뇌의 성장이 끝난 후 경계선 아래의 세계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생활이 흥미롭기조차 했다. 어둠이 깊어갈 무렵 이 셋덩이들은 깨어나 경계선 위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토로한다.

중독

“오늘 파괴될 뻔 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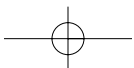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뜨거워진 바퀴에 격분하면 이 곳의 최고의 엔진을 단 철갑의 말 이였다.

“아니 왜?”

냉철하기로 이름난 바퀴의 물음이었다.

“언젠간 뇌란 놈도 죽고 나도 파괴될 날이 올걸 젠장”

철갑의 말이였다. 그에 의하면 뇌란 놈들은 한 가지 이상의 중독증상이 있다고 했다. 뇌의 회전에 의한 오판은, 쾌락의 증폭을



위한 마약과 쾌락의 끝은 허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른 쾌락을 찾아 통제되지 않는 방향이 있을뿐, 놈들의 세상이 파괴되지 않는걸 보면 신기할 뿐이라고……

“그 이유를 아직 모른단 말인가?”

냉철한 바퀴의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그의 말은 이어졌다.

“놈들의 세상을 움직이는 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지”

“그게 무슨 말인가?”

냉철한 바퀴의 말에 섬뜩한 표정을 하면서 철갑이 물었다.

“권총을 가장한 총소리 한 방이면 족하지, 허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평화 시에만 가능한 일이지, 혼돈의 시기엔 모든 질서는 무너진다네, 이것이 뇌의 취약점이라네” 라고 냉철한 바퀴의 말은 심오한 표정과 함께했다.

그 심오함이 전이되며 난 뇌의 정체에 대해 조금씩 이해되어짐을 느꼈다. 내가 알고있던 쇠덩이의 움직임은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닌, 뇌의 작용에 의해서였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은 허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동경해 마지 않았던 쇠덩이의 정체는……

뇌의 통제없이

또 다시 슬픔의 밤은 지나 세상의 경계선인 새벽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기에 난 꼬마 뇌에 이끌려 뇌 성장소에 머물렀다. 실망의 눈초리로 뇌란 실체를 보던 순간 난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중독 혹은 권총 한 자루에 지탱된 세상 속에 또다른 세상을…… 먼 훗날 중독되어질지언정,

성장되어지지 않은 진정한 세계는 작은 뇌가 움직여 준 미약한 구동력이었다. 자유! 그 자체였다. 난 그것이 기뻐다. 비록 두 바퀴의 미약한 몸이었지만, 이 영광스런 뇌에 의해 나의 페달이 밟

힌다는 것이 그 어떤 구동력 보다 자유로움에 흠뻑 빠져들게끔 했다.

자유를 맘껏 소유한 채 지상의 저 편 구석에 세워진 난 기뻐다.

성장의 작업이 끝난 후 나의 폐달은 밟혀 자유의 황홀한 쾌락과 동시에 슬픔의 밤은 도래하고, 철갑과 냉철함의 바퀴에게 난 오늘 자유의 놀라운 세상을 얘기하고 싶었다. 허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엄청난 중독에 의한 뇌의 판단 착오로 철갑과 냉철한 바퀴는 사라져 버렸다. 뇌는 심하게 다친 채, 놈들은 폐기 처분되었던 것이다.

자유로의 동행

영원할 것 같은 그들도 그저 고철덩이가 되어 렉카에 끌려 폐차장으로 사라져 갔다. 그저 사이렌 소리만 잠시 울릴 뿐이었다. 사이렌 소리마저 멈춘 폐차장, 이 슬픔의 폐차장에서 간과해선안 될 것이 있다.

-그건 영혼과 자유-

이 곳 이 죽음의 폐차장으로 오기까지 철갑과 냉철한 바퀴의 마지막 행로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난 알았다

호기심으로 가득찬 꼬마뇌에 이끌려, 그들의 마지막 행로와 함께 하게되면서……

영혼-그 가녀린 자유

법령에 의한 하나의 신호체제만이 존재하면 된다는 사실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건 영혼의 세계 바로 철로, 법령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세상 이미 정해진 선로 위에서만 자유롭기에, 또 다른 세상을 꿈꾸기에, 충분히 아름다움의 질주가

가능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영혼의 행로처럼

-잠깐, 자유라고 했나, 정해진 행로가 어째서 자유롭단 말인가? 더 넓은 도로위에서조차 법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게 생각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냉철함의 바퀴인 넌 자유의 의미를 모를 테니까, 자유란 그런거지, 이해 되어지지 않는 세계, 즉 새장 속의 새보다 창공의 새가 더 자유로운 건 이미 정해진 기류에 의해서지, 새장속엔 어떠한 기류도 없다는것.-

철마의 슬픔

하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천 번의 입맞춤이 필요하듯 철마의 자유로운 질주는 천 개의 부품을 품어야만했다. 그저 두 가닥의 레일이 갈려 있을 뿐임에도……

[그럼 철마의 자유란 것이 고작 두 가닥의 레일 때문이란 것인가?] 라고 바퀴가 물어었다.

[그런 셈이지, 저 넓은 광야에 자유가 엄청난 자유가 있을것같지 전혀 그렇지 않지, 그 곳엔 생존의 치열함이 있을뿐이지. 자유란 그렇게 한두 가닥의 가얏폼에 존재하는 법이라네, 자유로움의 질주를 위해 천 개의 부품을 품어야 하듯이 한 가닥의 자유를 위해 천 개의 슬픔을 안아야 하는법] 철갑의 일그러진 말투는 비통하기 조차했었다.

[그럼 철마는 슬프다는 건가? 자유로운 영혼이]

[바로 그것이지, 자유! 천 개의 슬픔을 품을 때만이 가능한 것, 노예는 결코 슬프지 않은법, 그저 힘겨울 뿐이지. 슬픔을 안은 노예를 본 적이 있는가? 그가 만약 슬픔과 공존한다면 이미 그는 노예가 아니라네]

[슬픔…… 약간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계인 것 같으면서 알순 있겠네] 그들의 분해되어짐을 느끼며 철갑과 바퀴의 마지막 대

화는 천 개의 부품처럼 심오했다.

폐차장의 슬픔의장은 이것으로 끝내려한다. 이제 좀더 슬픈 애
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꼬마뇌에 의한 아니 이젠 제법 성
장된 뇌에 의해…… 맨 먼저 저 핑음의 정체를 밝히고자한다.

또 다른 거대한 슬픔을 품은 세계

슬픔의 크기만큼 핑음을 동반한 그들의 세계는 비밀리에 움직
이고 있었다. 하늘을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세계
의 또 다른 지배자였다. 법령위에선 전쟁을 위한 필요악 그 이상
의 존재, 빼앗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
인지. 알수없는 이 세계는 철학의 세계에까지 등장하게 된다.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행나무에 기대선 나의 백밀러
에 비쳐진 뇌의 질문은 이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는 순간임을
난 느꼈다.

[.....피 빛 의 역 사 는또 다
른.....] 완전한 뇌의 말소리는 나의
밀러에까지는 비쳐지지 않았다. 이들의 언어는 비밀에 가까워 특
정의 뇌에만 전달되어지고 있기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한 뇌
에게만 비밀리에.

[해석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학살이 있는 반면 하나의 생명체
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숭고의 정신입니다.] 성장의
기로에 선 뇌의 말소리 역시 숭고했다.

[.....
.....] 완전한 뇌의 말은 완전한 대답과 동시에 끝맺음의
체스처를 보내곤 나의 밀러에서 사라졌다. 문득 나의 파괴가 있
는 날 폐차장의 냉철한 바퀴를 만난다면 학살과 숭고 사이의 뇌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졌다.

공중-그곳에서의 작은 질주

페달의 발힘을 느끼며 성장 중의 뇌에 이끌려 도착된 곳은 놀이기구차들의 세계, 이 곳은 어린 순수함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이젠 어린뇌도 점점 멀리하게될 유치한 세상.

알 수 없는 일은 순수한 세상에서 떨어진 뇌들의 행위는 더더욱 유치해진다는 것이다. 이놈의 뇌란 존재는 놀이기구속의 수수께끼만큼이나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이젠 놀이기구의 수수께끼속으로 들어가 성장중의 뇌의 환각을 경험할 것이다.

[공포를 즐기는 유일 무이한 존재, 어찌다 난 진짜공포를 선사하곤하지. 궤도에서 이탈되어 환각을 깨우곤 하지] 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두 개의 둥근 슬픔을 달고 허공에서 질주하던 놀이기구의 속삭임이었다. 나의 곁을 스치며.....

[그럼 철갑의 사고도 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게 아니란말인가?] 바람에 의해 가로등에서 미끄러지며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장담건데 뇌가 깨어나는 날 뇌의 잘못된 전혀없다는 주장이 나올걸세, 뇌외부의 그 무엇인가에 의한 사고라는게 뇌사에 있는 뇌의 주장이지] 작은 질주 속에서 성장 중의 뇌를 태운 채 그가 말했다.

[그럼 철갑은 왜 그런 짓을.....] 꼬마뇌에 의해 일으켜진 내가 물었다.

[.....] 작동
을 멈춘 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리모콘 그리고 지배

환각을 만끽한 뇌의 손에는 리모콘이 쥐어져 있었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놈의 핑음보다 무서운 소리를, 벽에 기대어진

채 난 듣고 있었다. 이 놈의 형상은 마치 철갑의 과거처럼 느껴졌다. 크기만 작을 뿐이지 모든 기능은 철갑의 그것과 흡사했다. 놈의 등짝에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내포된 글귀는 기대어 진 벽을 통해 햇살과 함께 미래에 흡착될 뿐이었다. 꼬마 뇌의 진정한 움직임에 의해 철갑의 과거는 뒤집히고 리모콘은 내동맹이 쳐졌다. 내동맹이 쳐진 리모콘의 뒷면에는 1984 라는 해진 숫자만이 보일뿐 놈의 바퀴는 허영이라는 허공을 향한 채 맴돌고 있었다. 지칠줄 모른 채……

허상의 그늘 속에서

뇌 성장소로 접어든 나의 페달은 자유를 향한 몸짓으로 지어졌고 성장의 뇌는 완성된 뇌에 의해 변모하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에 의지한 채……

현실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허상이 아닌 참 모습보다 더 진실되게 나의 미래에 비쳐졌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작은 뇌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되어 제2의 인생에 도래하게 되고 그는 완전히 다른 뇌로의 변이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사실에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변신이 있던 날과 너무 흡사하여……

그렇게 뇌는 변화였고 나의 의미도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심연 -표현될 때 드러나지 않지만 가시화되지 않는 무형의 양상들. 이 무형의 지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도 뇌 속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진실을 찾아 떠난 그는 심연의 바다 속으로 사라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가 남긴 일기를 통해 힘든 제2기의 또 다른 뇌로 변형되었다는 것밖에…… 일기1/ 내 삶이 힘겨워 도피한 이 곳은 충분히 이상한 곳, 혹은 비극적 환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몸은 구속된 채 영혼은 자유로운 곳, 나의 구속은 망망대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영혼 또한 망망대해로 인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라는 문제이다. 내 삶의 뒀안길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심로에 빠져 여기 이 망망대해 위에 그져서 있을 뿐 임에도 영혼의 자유는 먼 수평선 너머에서 여전히 손짓하고 있다. 영혼의 자유는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바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고 있었다. 엄청난 높이의 영혼은 저마다의 자유를 싣고 있던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다./

구조된 자유

일기2/ 구조된 자유는 저마다의 생의 부활을 꿈꾸며 침몰되지 않은 구속된 자유를 부여잡은 채 망망의 대해에서 비껴난 이 곳은 내생의 넓이만한 갑판 위,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갑판아래의 검푸른 바다의 일렁임에도 불구하고……/

일기3/ 밤마다 황제의 꿈을 꾸는 자는 실제로 황제의 삶이다. 알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이 좁은 갑판 위에서 펼쳐지는 사유가, 작은 세계를 끌어안고 있는 대해보다 넓음은 무슨 의미인가. 파도의 일렁임에 내 마음이 일렁여 저 하늘 높은 곳의 꿈을 꾸고 난 황제가 된다. 충분이 가능했다. 이곳의 황제 하나만 처치하면 난 황제가 되는 것이다. 순간 난 궁금했다. 황제의 꿈이………….

미완의 뇌- 철학의 세계에서 돌아와, 추억되어진 나의 체인에 기름칠을 하고 바퀴를 돌려 추억 속 후레시를 밝혔다.

미완의 뇌는 날 추억 속의 창고에 버려둔 채, 가끔 몽상 속에서의 그리움만 쫓을 뿐 갱도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버려진 난 그의 원형이었던 오래된 뇌에 의해 녹슨 페달이 저어질 뿐이었다.

오래된 뇌는 슬플 것조차 없는 노을의 그림자에 날 기대어 세워두고 석양을 응시한 채 말했다.

“참 아름답기도 하구나 넌”

오래된 뇌의 눈가엔 아름다움이 묻어 나의 밀러에 떨어졌다.

“난 이렇게 늙어 가는데 너의 빛깔은, 늙지도 않은 나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히 아름답구나 알 수 없는 건, 나의 사라짐은 한 없이 초라한데 넌 우아함의 극치속으로 사라지는구나. 내일의 또 다른 태양이 있기에 저토록 아름답겠지, 나의 또 다른 태양은 무엇일까? 내 아이, 잊혀진 나의 시, 꿈”

밀러에 떨어진 아름다움은 따뜻했음에도, 오래된 뇌는 노을 속에서 떨고 있었다.

노을 속의 주행

오래된 뇌와의 오랜 산책은 나의 바퀴를 황홀케 하기에 충분했다. 바퀴는 도로 위를 떠 노을 속을 달리는 것과 흡사했고, 그의 철학적 고뇌는 뇌성장소에서의 그것과는 비견되지 않았다. 그 고매한 철학 속에서 비로소 난 알았다. 뇌란 중독 속에서만 헤메이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갱도를 헤매고 있을 성장의 뇌에게도 이런 날이 멀지않아 찾아와 나의 페달의 꿈을 또 다시 저어주길 학수고대해 본다. 노을속에서.....

2012년 경남청소년문학대상

◆ 중등부 산문

등위	이름	학교/학년	제 목	전화번호
으뜸	조현주	통영여중1	아빠의 어버이날	010-6611-8762
버금	김길량	밀양 밀성여중1	꿈	
	윤지영	거제 해성중2	영웅의 방	010-8846-9973
북돋움	박한솔	밀양 밀성여중2	니 뭐 묵노?	
	심현지	거제 고현중3	친구와 나의 사춘기	
	이새봄	거창여중3	거짓말	
장려	박한울	밀양 밀성여중2	하늘, 땅! 꺾어서, 받기!	
	김상학	통영 중앙중3	꿈	010-8831-1628

◆ 고등부 산문

등위	이름	학교/학년	제 목	전화번호
대상	정혜진	창원성민여고3	개	010-5646-5246
으뜸	김은영	양산여고3	시장개 멍구	010-2580-7501
버금	이지은	창원중앙여고2	바람 흐르는 곳	010-9268-2853
	김서연	경남간호고1	슬럼프	010-4942-6387
북돋움	강채린	마산여고2	어디론가 가고 있다	010-6506-7313
	조혜상	진주대야고 3	온 몸을 불태워 빛나는 작은 별처럼	010-8884-9185
	김수지	마산내서여고3	다시 맞닿은 두 손	010-9250-2388
장려	김혜인	마산제일여고2	이웃 사춘	010-6737-2788
	김은경	함양고2	사랑	010-6860-9321
	김혜림	칠원고1	그림을 그리는 아이	010-6215-8207

◆ 중등부 운문

등위	이름	학교/학년	제 목	전화번호
으뜸	김민지	밀성여중3	점심시간	
버금	김주은	김해여중1	몽당분필	010-7550-4904
	이경연	밀성여중3	추석	
북돋움	길예진	김해여중1	나무	010-8835-7669
	정나은	마산제일여중	나동이	010-4936-6372
	신현아	남해창선중3	내 인생의 빨래집게	055-867-1007
장려	박소연	거제옥포성지중2	노란 색연필 한 자루	055-680-1120
	이희윤	거제고현중3	손	

◆ 고등부 운문

등위	이름	학교/학년	제 목	전화번호
대상	김진아	창원여고3	탈레이아	055-297-1002
으뜸	손수진	마산가포고3	숫자의 노예	010-5612-5538
버금	배지선	창원성민여고3	학교와 새와 애벌레의 초상	
	이준의	마산가포고3	발	010-2829-4611
북돋움	정유선	진주제일여고2	기억	
	김희준	통영여고 3	해방다리	010-3833-5865
	손유진	함포고1	엄마	010-4241-4129
장려	최현영	마산가포고3	지렁이	
	박상원	진주외국어고3	골목길	010-2842-0568
	사기동	마산가포고3	유기농 공부	010-7142-9294

■ 산문-중등 심사평

올해 중등부 산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다. 독창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구성도 평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상상력, 진지한 주제의식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청소년문학 대상에 걸맞은 성과를 내온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실망감이 앞섰다. 하기 싫은 숙제나 일기장 같은 무색무취의 글쓰기가 아닌 패기 있고 생동감 넘치는 청소년 ‘문학’을 기대한다.

◇ 예심 심사위원 : 박종국(수필가), 하아무(소설가)

■ 산문-고등 심사평

예심을 거쳐 넘어온 작품이 모두 10편이었다.

대체적으로 문장의 기초가 약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제를 부각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혜진 양의 〈개〉는 소재도 특이하거니와 그것을 다루는 솜씨가 단연 돋보였다. 다소 난잡한 문장이 군데군데 눈에 거슬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대상으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김은영 양의 〈시장개 명구〉는 다른 작품에 비하여 문장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구성과 짜임새가 있어 호감이 가지만 소재가 너무 단선적이어서 동화에 가까운 점이 아쉬웠다.

이지은 양의 〈바람이 흐르는 곳〉은 표현력은 좋으나, 가현이가 옥상에서 투신하는 동기가 미흡하여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김서연의 〈슬럼프〉는 가장 고등학생다운 소재이나 이야기를 너무 안이하게 끌고나감으로써 상투적인 내용이 되고 말았다.

조혜상 군의 〈온 몸을 불태워 빛나는 작은 별처럼〉은 교내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나간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다른 작품들이 주는 감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수지 양의 〈다시 맞닿는 두 손〉은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원폭력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형상화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입상에 들지 못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 분발해 주기 바란다.

◇ 본심 심사위원 : 김춘복(소설가)

■ 운문 심사평

경남청소년문학대상 공모전이 올해로 11회째 접어들었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작금의 시대에 컴퓨터의 자판이나 스마트폰의 터치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지에 자아의 인식과 발현의 성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으로부터 세뇌되거나 유린되지 않

은 청소년들의 자아발현성을 으뜸의 기준으로 삼고 투고된 작품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투고된 작품들의 수준은 이전의 작품들보다 집중력이나 노력과 정성이 점점 결여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작품성을 차지하고 그들의 정직과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의 순수성 그리고 그들의 현실인식, 아픔, 희망과 바람들을 느끼면서 소중한 시편들을 읽어 보았다.

“숫자의 노예” 같은 경우가 그렇다. 적어도 현실을 좌시하지 않은 앎겠다는 울림도 있었다. 이러한 참여적 성향은 아마도 오랫동안 시를 써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는 노래여야 한다. 대상으로 뽑힌 뮤즈의 모습에서 나오는 가면에 대한 사유와 이를 풀어 가는 시적리듬에 속도가 있고 경쾌하기까지 하다. 또한 긴 여운을 남기고도 있다.

선뜻 대상 작품으로 지목하기에는 주저되는 바도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랐음을 밝혀둔다.

청소년문학공모전이 오래오래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 예심 심사위원 : 노창재, 김명우, 이경재, 김덕우, 박현숙 시인

◇ 본심 심사위원 : 서규정 시인

| 작품 응모 편수 |

- 중등 : 산문-57편, 운문-78편
- 고등 : 산문- 55편, 운문- 84편 총 276편

■ 고등부 대상 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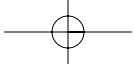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탈레이아

—그래도 당신의 가면은 깨지지 않음을

김진아 창원여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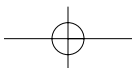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탈레이아.
나는
당신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라 칭하고
그들의 풍경이 되어
공간과 시간 속에
녹아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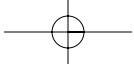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탈레이아.
스쳐가는 그들이
내게서
볼 수 있는 건
그저
맑은 청빛 하늘
그리고



밝은 금빛 태양
그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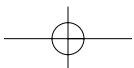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하지만 탈레이아.
당신은 알고 있지요
소리도 없이, 대지를 적시우는
비
(그 무수한 직선의 화살)
나의 세상은
그렇게
갈리우고
젖빛에 침식당하고
그런 와중에
당신의 가면을 쓴 내가
떠돌며
춤추고 노래 부른다는 것을.





탈레이아.
이제 나는
당신의 가면을 쓰고
빗줄기를
세는
바보가 됩니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추적추적 흘러내리는,
웃고 있는 나의
목을 압박하는
화살들을
세는…….

* 탈레이아(탈리아)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뮤즈 중 한 명으로, 희극과 목가 등을 관장하며, 희극적인 가면과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 고등부 으뜸 운문

숫자의 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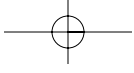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손수진 마산가포고 3

옛 상인들이 장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작은 표시
사과 3개
짚신 2켢레
이렇게 유익한 숫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모의고사 1등급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한 등급 내려가는데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운다
아파트 18평에 엄마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64평에 세상을 거느린 것처럼 뻗뻗하다
연봉 3천 받는 아빠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1억받는 옆집 은행원 아저씨는
양주마시고 팍송부르며 집에 온다

숫자 하나에 울고 웃는 우리
하나님 위에 돈 있고
부처님 위에 돈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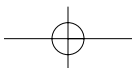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200 경남작가



대통령 위에 재벌 있다

재벌을 황제로 모시게 만든
숫자의 나라 돈의 나라
성적의 나라 계급의 나라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해
철로가 돌아가는 여유
두꺼비들의 길을 위해
공사를 멈추는 배려
숫자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고
등수보다 심성이 더 중요한
세상을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와야 한다.



■ 중등부 으뜸 운문

점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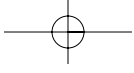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김민지 밀성여자중 3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
점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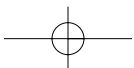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3교시 마치기 5분 전
몇몇 아이들의 발은 이미
책상 밖으로 나와있다.

3교시 마치기 3분 전
몇몇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해지고
귀는 총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에
집중되어 있다.

3교시 마치기 1분 전
빨리 먹고자하는 아이들의
책은 이미 덮여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깨는
선생님의 말씀
나와있던 발을 도로 집어넣으며
한숨을 쉬게 만드는
선생님의 말씀
“배고프지? 이것만 하고 마치자!”



■ 고등부 대상 산문

개

정혜진 창원성민여고 3

아버지는 흥두께를 높이 치켜들었다. 초여름의 적적한 바람이 흙을 스치고 지나갔다. 핏대가 물긋한 목울대와 팔뚝이나, 땀을 쫓아 그을린 등에서 흐르는 땀줄기는 내 눈에 너무나 야만적으로 비추어졌다. 그 앞의 황토색 가는 사지가 질긴 끈에 얽혀 버둥거렸다. 그 개는 묶인 주둥이를 풀려고 아가리를 열심히 움죽움죽댔다. 어르르르, 어르르르, 하는 저음은 내 몸에 소름을 일으켜냈다.

딱!

눈을 순간 꼭 감았다. 눈을 뜰 자신이 없었다. 늘 봐오던 장면이어서 더 익숙해질 수 없다. 물썬, 하고 개 핏대가 진동을 할 때 즈음 눈꺼풀을 비슬비슬 들추었다. 여즉 버둥대는 황토색 개는 대가리가 깨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손바닥에 가래를 한바탕 모아 뱉더니 흥두께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나는 멀리 도망가 버리면 되는 것이다. 개를 몹시 두들겨 패는 것, 그것도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느그 애비 개 잡는 거 좀 관두라 캐라.”

동식이 팽이를 치며 미간을 일그러뜨렸다. 열네 살의 시골은

그래 왔다. 아버지의 직업은 곧 아들의 놀림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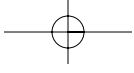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내가 새끼야, 관두라 한다고 관둘 것 같나?”

“이 새끼가. 동네 사람들 다아 흥본다.”

“와 소 잡는 건숙이네는 흥을 안 보는데. 지랄하지 마라.” 울컥 하는 마음에 팽이를 걷아챘다. 오동나무로 된 고급 팽이는 포물 선을 그리며 돌벽에 처박혔다. 발가락이 알알하여 발가락을 오므릴 즈음, 동식이 내 얼굴에 주먹을 나리 갈겼다. 이 미친 놈의 새끼, 지 애비처럼 개나 잡을 새끼, 들으면서 나는 온갖 욕설과 폭력을 방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개를 잡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때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열 넷을 먹었으니까, 한 일이 년 됐을 거다. 아무래도 정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나는 조그만 체구에 비해 비위가 강했다. 자극적일 정도로 시뻘건 피를 보아도 기분이 잠잠했으니까. 요새는 헛구역질이 올라와 자꾸 눈을 감게 되었다. 좀 전처럼. 아버지는 수백 마리의 개를 때려죽였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같은 흥두개를 사용해 왔고, 항상 옷통을 벗고 그것을 행했다. 솔직히 나는 개를 잡는 것만 봐왔지, 그 이후의 일은 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비위가 강했을 때도 그것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개의 머리통에 열십자(+)로 칼집을 낸 후 껍질을 벗기는 건 나도 아는 순서였다. 내가 커서 아버지의 일을 떠맡을 것도 아닌데, 딱히 어깨너머 배워 두고 싶지 않았다. 전혀 득 될 것 없는 만행으로만 보였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다. 내성적이고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으셨다. 몸은 마른 근육질에 조금 굵은 등이 개 도살과 함께해 온 세월을 말해주는 듯하다. 아버지는 고기반찬보다 채소반찬을 더 선호하셨고, 집 안에 개 피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비누가 마르고 닳도록 몸을 씻곤 하셨다. 어머니는 자주 외출을 하셨다. 나가서는 항상 치마폭 가득 돌을 주워 오셨다. 식사는 정 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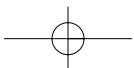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차려 주셨다. 아버지는 수저를 뜨는 듯 마는 듯 도로 일하러 나가
기 마련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 입이 짧았고, 어머니는 밥을
먹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 우리를 바라보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는 건지 서른 해가 지난 지금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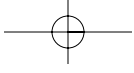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개는 모두 같은 색이었다. 대부분 우중충하고 농도가 진했다.
아버지가 개를 잡으려고 마당 중앙의 우물에서 흥두개를 씻는 때
면, 그때 애들 사이에서는 구경거리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아버
지는 개를 잡기 전에 흥두개를 항상 씻기 때문이다. 하루에 많으
면 열댓 마리를 두들겨 패는데, 도대체 그 많은 개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아버지는 아침 일찍 새벽이슬을 맞으며 낚은 용달차에
개를 싣고 돌아오셨다. 개들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은 새벽을 가
르곤 했다. 개는 불쌍한 동물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동물이
다.

아버지가 우리에서 검은 개의 목덜미를 쥔 채 질질 끌고 뜰의
중앙으로 갔다. 애들은 우우, 하고 저들이 더 흥분해 발을 구르고
야단을 피웠다. 아버지는 구태여 그 애들을 쫓지 않았다. 날파리
와 동일시 해버린 것 같았다.

“이야아, 저거 좀 보라. 개 배때지가 산만하다이.”

한 놈이 그러기에 검은 개를 보았다. 개는 만삭의 암컷이었다.
젖이 늘어진 개는 귀를 접고 바닥으로 배를 처 깔고 도무지 움직
이려 하질 않았다. 아버지는 근육이 울긋한 팔로 개의 목덜미를
움켜 들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개가 묶인 사지를 힘차게 역
동했다. 검은 개는 어머니가 된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한번도
아버지가 이런 개를 잡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끄궁, 끄, 킁킁,
하며 검은 개가 묶인 아가리 사이로 그렇게 울었다. 나는 다가가
서 “아부지, 그건 안 잡으면 안 됩니까?”하고 여쭙고 싶었다. 아
버지가 모난 흥두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디서 커다란 단도를
들고 와서 흥두개를 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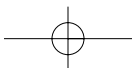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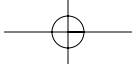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일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 종아리만한 어린 개를 쾅쾅 묶어 뜰에 내팽개쳤다. 그때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졸랐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저아 키우자. 너무 작다 아입니까.”라고.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덩수룩한 수염을 어루만지고, 흥두깨를 치켜들었다. 딱! 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의 파동이 귓바퀴를 감쌌다. 나는 머리통이 좁은, 힘 빠진 어린 개를 보면서 표정을 지워버렸다.

입술을 달싹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검은 개는 흙바닥에 몸을 문지르며 울었다. 아버지가 순간 칼을 뒤에 가지런히 두고 흥두깨를 집어들었다. 귀를 막았다. 두어 번 딱, 딱 소리가 나더니 멈추었다. 개는 부들부들 떨며 거꾸로 새끼를 토하고 있었다. 애들은 우와야, 우와 하며 감탄했고, 나는 개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서툴게 탯줄을 끊어 묶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옷옷을 벗어 건강한 네 마리를 싸안고 달음질쳤다. 누구도 나를 쫓지 않았다. 가벼운 발걸음이, 똥똥 뜨는 고무신 축이, 나를 하늘로 데려다줄 것이다! 나는 내 뒤로 딱, 딱 하고 어머니가 된 개를 두들겨 패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 마리의 검은 새끼는 귀를 찢는 듯이 울며 어미를 찾아댔다. 나는 집에 찹즙을 한가득 짜둔 것을 기억하고 그걸 가져와서 어린놈들에게 꾸역꾸역 먹였다. 그러자 좀 전부터 울음이 간헐적이던 한 마리가 식어버렸다. 이런, 젼장, 하고 달려 한 장에 싸서 마당 구석에 깊게 묻었다. 나는 집에 하나뿐인 면솜인형을 뜯어 세 마리를 안에 두었다. 그리고 별에 두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찹즙을 먹였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누렇게 바랜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집안을 팔자걸음으로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구십도 넘게 허리를 꺾어 아버지를 반기었다. 아버지는 나를 그대로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 날 나는 내가 자초해서 마당에서 잠을 잤다. 며칠 동안 새끼들이 울 때마다 찹즙을 주었고, 찹즙은 점점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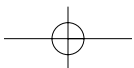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들었다. 결국, 이를 만에 한 통을 끝장냈다. 나는 부엌에서 꿀을 두 주먹 가져와 물에 탔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장으로 갔다. 혹시나 어미 개가 있으면 몰래 젖을 물려볼까 해서였다. 밤은 검은고, 시야는 적응할 길을 몰랐다. 개 눈이 달빛에 반사되었다. 순간 오륙십 마리가 되는 개가 우당탕, 하고 높게 짖었다. 증오가 빗발쳤다. 그 무서운 수십 개의 눈들……. 개들은 철장을 물어뜯고 온갖 발작을 하며 나에게 분노를 표했다. 나는 귀신이라도 만난 듯 소스라치게 울면서 개장을 뒤로하고 뛰었다. 개는 짖었다. 목에 피가 나게 짖었다.

옆집 우국성이네 집은 잘산다. 우국성은 텅치도 우람하고 모도 팍팍 잘 심는다. 산수도 펍 잘해서 이번에 반장으로 추천받았다. 유력한 후보로 나아갈수록 우국성은 콧대가 높아진다.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우국성의 아버지도 몸이 씨름선수 장대홍처럼 호랑이같다. 불의를 보면 못참는 일반적인 신갈리 사람이었다. 대신 불이익도 참지 못했다. 개장에 개가 모조리 탈출한 적이 있었다. 빌어먹을 놈의 우국성이새끼 짓이 분명했다. 나는 어이 말도 못하고 집 안에서 소리만 질렀다. 개장의 철창은 모두 단단하고 녹이 적당히 쓴 자물통으로 잘 잠겨 있었던 말이다. 개들은 신나게 내달아서 우국성이네 논을 엉망으로 짓밟아 놓았다. 왜냐하면, 개장 출입구 바로 앞에 우국성이네 논이 짝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덕택에 잘 심어놓은 모 대부분은 함몰됐다. 아버지와 나는 허우적허우적 개를 쫓다가 나는 개한테 한 번 물리고, 아버지는 다리에 쥐가 났다. 우국성이네 아버지가 다가올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느그 아들내미한테 단도리 보아야제?”

우국성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개 잡는 흥두께 같은 손아귀로 아버지의 멍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신갈리 사람들은 구경했다. 수치스러웠다. 우국성 아버지의 무지막지한 주먹은 아버



지를 패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목을 놓고 또 울고, 우국성이는 웃었다. 우리 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하다 모아온 돌을 놓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때려죽이던 개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많이 맞고 일주일을 내리 앓았다. 마른 몸이 펄펄 끓고 어머니는 돌을 모아올 틈도 없이 아버지를 간호했다. 아버지가 개를 패서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다. 아마 어머니가 이 때 침습을 만든 것 같다. 덜 우려서 이틀도 못 먹고 처방아 놓았지만.

새끼들이 나날이 컸다. 눈을 뜬 지가 언젠데, 벌써 바닥을 기고 나를 알아보았다. 확실히 나무를 타거나 개 잡는 것을 보는 것을 줄이니까 보살필 시간이 나는 것이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몰래 내 밥을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개 사료 창고의 열쇠를 찾지 못하는 이상, 나는 내 밥을 줄여가며 개를 키워야만 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 이 검둥개 세 마리를 키워서 어디 쓸 것인가? 아버지에게 드려서 효도할 것인가? 여우가 나온다는 뒷산으로 사냥을 갈 것인가? 밥을 비워 주느라 아버지와 검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루는 어쩌다가 뒷산을 가서는, 큰 뱀을 때려잡아 개들한테 다 구워주고, 밥 한 공기를 차지할 기회가 생겼다. 허겁지겁 밥을 퍼먹는 나를 보며, 아버지는 제 공기의 밥을 떠내 바닥을 보이는 내 공기로 옮겨 주었다. 나는 한 달 굶은 놈처럼 게걸스럽게 밥을 씹어 삼켰다. 아버지는 정종을 후루룩 들이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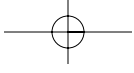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개 안 버릴 끼가?”

“.....”

나는 순갈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두 번째 잔을 채우고 있었다.

“처리 했으모 좋겠다.”

“싫습니더.”



“내 그 꼴 볼 것 같나? 내 일이 개를 잡는 건데.”

“싫, 싫습니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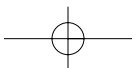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나는 손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버지는 잔을 꺾어 목구멍으로 흘렸다. 꿀떡꿀떡하는 소리가 징그럽게 생생했다. 나는 고개를 모로 휘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거, 앉으라. 하는 아버지의 쓸쓸한 취기가 들려왔다. 거, 앉으라고.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꾀죄죄한 검등개 삼남매를 보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달힌 문 틈새로 아버지의 노랫가락이 흘러 나왔다.

“이-렇게에- 살다가- 내에- 니임은-....”

어머니는 또 어디로 가신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소싯적에 예뻐다. 그래 봤자 칠 년 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일곱 살의 뇌리에 콕 박힌 것이다. 지금은 분명 달라졌다. 전처럼 고운 옷을 꺼내입지 않고, 늘 돌을 주우러 다니기 일쑤였다. 딱 한 번 아버지가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언녕이네 할매가 귀땀하기를, 자꾸만 남정네를 만나러 다닌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별별 떨리는 손으로 홍두깨를 씻으면서, 아버지는 무당처럼 주문을 외고 있었다. 나는 그 밤에 이불을 쓰고 일찍 누웠다. 말이 잠이지, 눈을 둥그레 뜨고 날밤을 셀 수 밖에 없었다. 바깥에서는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과 춤추는 홍두깨가 달빛에 뒤섞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를 말을 내뱉다, 조금 지나자 어어어- 우우-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내질렀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지만 앉았으면 나는 아마 그 시절,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나흘 정도 개 잡는 일을 멈추었다.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싶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말을 잃게 된 건 또 우국성이네 일로 돌아간다. 침침으로는 도저히 끼니를 때울 수 없다고 여긴 어머니는 치



맛단을 모아쥐고 도둑질을 나눴다. 사실 한 이틀간은 좋았다. 개 잡을 때도 잘 못 먹던 송어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삼 일째 되는 날, 나는 꼭두새벽 바깥에서 우- 하는 소리를 들었다. 미닫이문 틈새로 비치는 광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잔인했다. 어머니는 수많은 돌팔매질로 실신해 있었다. 그런 것이었다. 우리 식구는 신갈리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집단이었다. 어머니가 왜 밥 동냥을 나서지 않고 도둑질을 했는가에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져 나왔다. 나는 내복 차림으로 달려나가 열댓 명의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돌팔매는 따갑고, 쓰리고, 차가웠다. 한 분을 더 두들겨 맞다가 한 사람이여, 그만 하십시오, 애 죽겠네. 하고 말을 꺼냈다.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배려였다. 사람들은 지켜워졌는지 우리 모자의 위로 침을 뱉고 사라졌다. 어머니는 극도의 공포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체온은 매우 높았다.

어머니의 체취에 섞인 피 비린내가 지독스럽게 콧속 점막을 울아팠다. 어머니는 두어 시간을 모진 돌덩어리로 얻어맞은 것이다. 그때 너무 많이 울어 갈증이 났다. 어머니가 가없고, 아버지가 가없고, 내가 가여웠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말을 잃고 돌을 모으기 시작한 며칠 동안도, 나는 울보처럼 울기만 했다. 혼자 나무를 타다 돌아오니 나의 검둥개 한 마리가 없어져 있었다. 파란 지붕 집 사는 가애의 말로는 너저 아버지가 꾸들기 패드라, 하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남은 두 마리가 꼬리를 치며 가애를 쳐다보았다. 그 가시나는 부잣집년인데도 나한테 잘해줬다. 그래서 주로 내가 뼈딱한 태도로 그 애를 대하곤 했다. 나 때문에 해코지 당할 것을 생각하면 얼굴도 보기 전에 미안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나는 발 앞꿈치의 방향을 틀어 개장으로 갔다. 역하고 비린 냄새가 반기듯 풍겨왔다. 아버지는 태연한 낯빛을 하고 흥두께를 깎고

있었다.

“아부지, 검둥이 한 마리 어쨌심꺼?.”

“오른다.”

“저한테 그 개가 어떤 갠지는 알고 그러는 거지예.”

아버지가 깎던 홍두깨를 내려놓고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움푹 패인 진갈색의 눈을 마주하자 오한이 일었다.

“뭘, 어따 쓸라고 키우노. 내 맨치로 뚜드리 잡을라고…….”

“내가 아부지 같은 줄 아나 본데, 저언혀 아입니다. 그런 야만적이고 치떨리는 행동, 내는 드러워서 못합니다.”

“……. 니 지금 뭐라겠노?”

“왜예. 어무이처럼 두리 패게예? 패소 패소.”

아버지는 말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돌아보면 잘못된 언행이었다. 내가 매일 쌀밥에 김치를 얻을 수 있는 건 일주일에도 수십 번 홍두깨를 휘두르는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조그만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내가 철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아버지는 근처의 막걸리 사발을 쥐고 크게 들이켰다. 양 입술로 차마 다 못 들어간 술 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크모 안다.”

“…….”

“일은 귀천이 없니라.”

“…….”

“먹고 살라모 다야 해야제.”

나는 역한 개장을 벗어나면서 더는 아버지에게 검둥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마을에 검은 개가 정력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버지는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 생각으로는, 그냥 한 마리는 양보했다는 식의 철부지다운 대책이었다. 나는 그 개에 대해 더 이상은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개가 벌써 쌀밥이 되고 김치가 되어 내

위장에 담뱃 들어앉은 것을 아는 이유에서였다. 그날 밤에 문득 내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아부지, 먹고 사는 건 좋은데예. 나도 사람 냄새 좀 맡고 살고 싶습니더. 우리 신갈리 사람들이랑 떡도 갈라먹고 젓갈도 갈라먹고 하고 싶습니더.”

“그 주둥아리 안 닥치나! 누가 그래 가리키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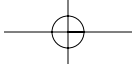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아부지, 저 진심입니더.”

아버지는 왜 불같이 화를 내던 것일까? 굳이 따지면 아버지는 화를 낼 입장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고, 마르지만 다부진 가슴팍이 옅화로 오르락내리락할 뿐이었다. 반주로 곁들인 막걸리의 약한 취기에 아버지는 조금 흥분한 상태였고 나는 툭 불거져 나온 한숨을 다시 목구멍으로 구겨 넣었다.

“니는 그냥 내가 맨들어주는 밥이나 퍼먹고 살모 되는 기라.”

나는 그것을 애써 못 들은 척하려고 눈을 감고 내가 잠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갈리가 한바탕 떠들썩해졌다. 일 년에 한번 있는 잔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은 우리식구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었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만 싫어하는 날일지도 모른다. 나는 가애 그 가시나가 팔목을 쥐고 끌고 나왔고, 어머니는 돌을 주우러 다니는 길에 몇 입 얻어먹곤 했다. 나는 가시방석에 눌러앉은 기분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애가 이것저것 내게 집어먹였다. 신갈리의 잔치는 신갈리의 돼지와 소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날이다. 개는 소비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외톨이가 된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내가 기억하는 잔치는 총 네 번이다. 아버지는 잔치가 진행되는 삼사 일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는 게 일이었다. 그저 잠만 자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밤에 내가 꿈쳐둔 음식을 조금 잡숫는 게 일이었다. 가애는 자꾸 나에게 말을 시켰다. 수선을 떨면서 고의로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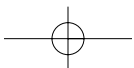
만 보였다. 귀찮았다. 아버지가 평소처럼 흉두꺼를 둘러메고 개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열네 살은 힘들었다. 철이 들락말락하는 나이는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사춘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려니 했다. 문득 바람이 한 차례 불어 천막이 우들우들 떨렸다. 먹을 품은 구름이 늘고 하늘이 컴컴해졌다. 가애가 가지런히 무릎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서로 부대끼며 우르릉, 하고 울렸다.

그때 나는 어쩐지 불안해졌다. 마음이 은근하게 불편해하고 있었다. 나도 이곳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다. 하늘은 크게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분주하게 국을 푸고 수육을 썰었다. 저마다 웃고 떠들면서 서울의 조카를 언급하고, 춘천의 육촌 어르신을 들먹였다. 누구를 위한 잔치일가. 나는 사람들 사이 대화의 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실속 없는 화목이었다. 이것을 느낀 순간, 등줄기가 와락 시려졌다. 소나기다. 쇠아, 하고 차갑고 가느다란 물이 한 묶음씩 곤두박질쳤다. 그제야 사람들은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천막을 오므리며 대책을 세웠다. 이윽고, 정말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개 떼의 요란한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울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버지는 비 사이로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아버지는 홀로 만취 상태였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고요한 가운데 비만 시끄럽게 바닥을 강타했다. 사람들이 곧이어 수군거렸다. 중간마다 크게 웃고 욕을 퍼부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이것을 자처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에서 시커먼 개의 무리가 개미 떼처럼 얹혀 내달았다. 우우우, 쾅쾅, 하면서 내달았다. 그러자 시끄럽던 주위에 다시 적막이 일었다가, 곧 사람들은 놀라 그릇을 엮고 음식을 집어던졌다. 개들이 목청이 터져라 울며 증오를 쏟았다. 가애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멍청하게 서서 삼시간에 엉망이 된 잔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 가운데 서서 울다 웃다 하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입에서 겨우 흘러나온 소리는 빗물과 함께 섞여버렸다. 아버지, 그만 하이소. 저거 다 우리 밥이고 김치 아입니까. 혼자 퀴퀴한 이부자리 위에 앉아 술을 마셨을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제야 눈시울이 붉기 시작했다. 저를 당연하다는 듯 빼고 떠들썩한 잔치에 귀를 기울이며, 남의 대화 주제를 저도 모르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 그만 하이소. 아버지, 아버지.

“당신 진짜 미쳤나. 이게 뭘 지랄이고!”

“지이랄! 내가 지금 지랄을 한다꼬?”

우국성이네 아버지가 팔뚝을 걷고 나셨다. 내 눈에서 흐르는 건 빗물일까. 눈물일까, 알 수 없다. 나는 이불에 먹이는 풀을 발 바닥에 칠한 것처럼 한 발도 딛지 못하고 가만 서 있었다. 개는 사람을 쫓고, 멀리 도망가고, 허벅다리를 물었다. 개는 짖었다. 울었다. 하늘은 번쩍이며 서럽게 울었다. 나도 울었다. 천막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거센 빗줄기 사이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들었다. 비가 그쳤을 때는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신갈리 사람들도 없었고 오로지 나 혼자였다. 음식은 개들이 거의 다 주워먹고 없었다. 비 온 뒤의 흙 냄새가 흥건하게 올라왔다.

아버지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셨다. 아니, 모두 그렇게 추측할 뿐이었다. 우리 집은 암묵적인 압박에 못 이겨 이사를 했다. 저 멀리 산동네로 집을 꾸렸다. 어머니는 어쩐지 돌을 가져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사용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짐 꾸러미를 싸는 도중, 남은 개 두 마리가 떠올랐다. 아버지 뒤통무늬를 쫓아갔을 것이다. 더는 흥두깨를 휘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 조롱하지 않

는 곳으로, 나는 아버지의 흉두꺼를 챙겨 들었다. 개털과 개 피가 얼룩진 지저분한 몽둥이는 분명 세 식구의 숟가락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월월월…….

푸들이 조그맣게 하품했다. 단정하고 하얀 푸들은 그 거무죽죽한 개들처럼 분노할 줄도, 눈을 번뜩일 줄도 모른다. 나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었다. 기억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사나운 개들을 맞서면서도 신기하리만큼 교상 하나 없이 멀건 아버지의 상체였다. 흉두꺼를 지켜든 그 팔뚝이, 핏줄이, 그을린 등이 그림자다. 어머니가 모으던 돌도, 처음 죽은 검은 개도 그림자다.

“아빠, 그 막대기 뭔데?”

딸이 흉두꺼를 낀 나를 보고 물어왔다.

“……. 이거, 느그 할아버지.”

문득, 어디선가, 역한 개 비린내가 나는 듯하다.

■ 고등부 으뜸 산문

시장개 명구

김은영 영산여고 3

내 이름은 명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시장개라고 불러요. 아저씨를 따라 아침에 시장으로 갈 때면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께서 나를 부릅니다.

“시장개! 이제 오나?”

그러면 나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인사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안녕! 정답게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새 우리 가게에 도착해요.

우리 아저씨는 가게 문을 열고 간단히 청소를 하세요. 그동안 나는 방해되지 않도록 문 밖에 서 있다가 아저씨가 나를 부르면 가게로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도 힘내보재이.”

아저씨의 웃는 얼굴이 좋아요. 나는 대답을 합니다. 명!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는 색색의 과일을 진열해두고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르면 준비완료! 금세 시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아오거든요. 생기 넘치는 그 얼굴들과 시끌벅적한 말소리도 나는 참 재미있어요.

“아저씨, 참외 얼마해요.”

젊은 새댁이 오셨어요. 나는 꼬리를 흔들며 아가씨를 바라봅니다.

“어머, 시장개 안녕?”

“어서오십쇼. 참외는 한 바구니에 오천 원입니다.”

새댁은 잠시 참외를 고르더니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때입니다.

“엎드려! 땡!”

나는 명령대로 배를 뒤집고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새댁은 흡족한 듯 웃고 참외를 계산합니다.

“다음에 또 오십쇼.”

손님이 멀어지자 아저씨는 나를 여기저기 장난스럽게 쓰다듬습니다.

“우리 멍구 잘 현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 아저씨의 손을 핏습니다. 아저씨가 좋으면 나도 좋아요.

점심때가 되면 시장에도 잠깐의 휴식이 찾아옵니다. 나는 아저씨가 준 사료를 다 먹고서 아직 식사하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 슬며시 가게를 나옵니다. 배가 부르니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볼 생각입니다.

“에이고, 이 과일집 시장개 아이가. 마실 나왔는갑네.”

생선집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맞아주십니다.

생선집 아저씨는 몇 년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대요. 그때는 시장에도 잘 안 나오고 올 때면 술냄새가 독하게 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가끔 아이들이 시장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생선집 아저씨가 가장 크고 남자답게 웃을 때가 그때예요. 너무 소리가 커서 내가 깜작 놀란 적도 있을 정도라니까요. 아저씨가 씩씩하게 돌아와서 기뻐요. “시장개! 니

어데 가노?”

닭집 아줌마시네요. 나는 시장을 돌 때면 꼭 이 집에 들러요.

“니 거 있어봐라.”

왜냐하면 아줌마는 남은 고기덩이를 나를 위해 모아두시거든요.

“자, 마이 무래이.”

감사히 먹을께요. 아줌마는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 아주머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가족이라곤 딸 뿐이었는데 만나지 못한 지가 십 년이 넘었대요. 딸 생각이 나는지, 한 번도 못 본 손자 생각이 나는 건지 나만 보면 이렇게 오래 쓰다듬어 주십니다. 딸의 결혼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간직한 채로 이 시장에서 기다리면 딸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세요.

“시장개 나는 다른데 가지말고 아저씨 옆에 잘 있으야지 이리 돌아다녀도 되는기가? 아저씨가 걱정 하실 테니 어여 가라.”

빨리 가라고 하시면서도 아주머니는 고기덩이를 더 내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깨끗이 먹고 혀로 입을 닦아냅니다. 잘 먹었어요. 저 같게요. 아주머니는 내가 멀어지는 것까지 지켜보신 후 가게로 들어갑니다.”

“이리 와봐라. 응? 이리 온. 쭈쭈쭈.”

아, 나물 파는 할머니시네요. 시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예요. 나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나를 한참동안 안고 쓰다듬어 주세요. 처음 들어보는 다른 나라 말로 노래도 불러 주세요.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부모님을 잃고 6.25때 남편을 잃었대요. 그 후로 꼭 이 시장에서 나물을 팔면서 혼자 살아 오셨다고 해요. 나는 할머니께 재물을 부립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 좋을 텐데 늘 잔잔히 미소만 지으시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장은 소란스러워집니다.

“고등어가 네 마리 오천 원!”

“싱싱한 채소~ 채소 사세요~”

나는 시장 사라들을 구경합니다. 장가 들 밑천을 모으는 정육점 총각, 아이들 휴대 전화를 사주겠다는 이불집 아줌마, 결혼기념일에 고급 레스토랑에 갈 거라는 가구집 아저씨…….

모두 열심히 소리칩니다.

“구경하고 가세요 !!”

뽕튀기기계가 응원을 하듯 팽 축포를 쏘아 올립니다.

나는 생기 넘치는 사장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몇몇 가게가 이 시간까지도 문을 열지 않았네요. 아저씨 아줌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나는 산책을 끝내고 우리 아저씨에게 돌아갑니다. 아저씨는 어두운 얼굴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나는 아저씨 발 아래에 자리를 잡고 엎드립니다.

“멍구 왔나~”

네, 아저씨!

“멍구야~ 우리 열심히 살재이. 다 흠어지고 갈 길이 없어봐도 우리는 힘내재이, 알긋나?”

나는 아저씨의 손길을 느끼면서 낮잠에 빠집니다.

“어디든 살아갈 길은 안 있겠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저씨와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어쩐지 한적합니다. 시장개, 하고 불러주던 시장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아저씨의 표정도 그늘에 잠긴 것처럼 어둡습니다.

어저씨께서 과일가게를 청소하시는 동안 나는 시장의 모습을
스스 훑어봅니다. 며칠내내 열리지 않은 가게의 굳게 닫힌 셔터에
시선을 잡는 빨간색 페인트가 '철거'라고 적혀 있어요. 철거라는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예요. 저게 무슨 뜻이지요?

“멍구야, 일로 와라.”

멍! 나는 아저씨에게 안깁니다. 아저씨는 내가 애교부리는 것
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꼭 안아주세요.

“멍구야, 시장은 오늘이 마지막이대이.”

오늘도 힘내자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시는건 처음이에요.
내가 꼬리를 흔들자 아저씨의 손이 내 주둥이를 이리저리 못나게
일그러뜨립니다.

“가서 잘 지내시라고들 인사하고 온나.”

나는 가게를 나와 한적한 시장을 걷습니다. 북적북적 시끄럽던
시장은 어디가고 빨간 페인트만 남은 거지요? 철문이 막아선 가
게와 비닐로 덮힌 진열대들이 생소하네요.

작은 네모 안에 끼여앉아 숨죽이는 바깥보다 생기 넘치고 사랑
이 넘치는 여기가 좋았는데…….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이 시장이 그리울 때 돌아올 곳이 사라지는 걸까요?

정든 사람들은 흩어지겠지만 나는 우리 아저씨랑 함께 다른 정
붙일 곳을 찾아 갈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더 이상 시장개가 아니
라 아저씨의 멍구로 돌아가는 거지요.

안녕! 치열하게 사는 모두들, 정 많은 시장도, 안녕!

■ 중등부 으뜸 산문

아빠의 어버이날

조현주 통영여중 1

“현주야! 빨리 나와.”

“지금 나가고 있어. 아빠, 잠깐만 기다려줘.”

“시간 없어!”

“알았다구.”

요즘 들어 매일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아빠와 나의 모습이다. 올해 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빠 차를 가끔 얻어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타고 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자 갑자기 많이 달라진 환경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다. 3월에는 긴장감과 설렘에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고 적응하느라 바빴고, 4월이 되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적응이 되자 나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다. 그런데 긴장이 풀어지자 나의 몸도 느슨해졌는지 몸살로 인한 체기로 토하고 고생을 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그 이후부터 아빠가 출근길에 매일 나를 학교 근처까지 태워다 주셨다. 이젠 괜찮다고 해도 “아직은 안 돼!” 하시면서 고집을 피우신다. 역시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무한 사랑이다. 엄마, 나, 그리고

동생이 “여보”,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뭘 바라는지 다 알고 우리가 바라는 걸 해결해 주신다.

그런 우리에게 무한 애정과 사랑을 주시는 아빠를 위해 동생과 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멋진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버이날 아침, 엄마 아빠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아빠에게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오셔야 한다고 미리 일러두었다.

학교 수업을 끝나치고 집에 오자마자 동생과 난 이벤트 준비에 바빴다. 풍선을 불어 예쁘게 장식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용돈 모아 산 아빠의 넥타이와 양말, 엄마의 속옷을 예쁘게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빠가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만의 어버이날 행사를 시작했다. 편지를 읽어드리고 선물을 증정하고 동생과 나의 합동공연도 보여드렸다. 엄마 아빠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감사해하는 마음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가슴에 행복과 사랑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장실에 갈려고 거실에 나와 보니 아빠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다.

“아빠! 왜 안 자?”

“그냥, 잠이 안 와서... 들어가서 자.”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나는 순간 아빠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 보고 그대로 멈췄다. 아빠가 울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소리 죽여 가며 울고 있었다. 아빠의 갑작스런 모습에 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렇게 아빠는 한참을 우셨다.

“아빠!”

“아직 안 잤어? 우리 딸, 안아보자.”

하시면서 나를 꼭 안아주셨다.

“현주야! 아빠도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 불러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았다. ‘그래! 아빠에게도 엄마, 아빠가 계셨지. 난 그걸 왜 몰랐을까? 아니 왜 잊어버렸을까?’ 생각하지도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없다.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흔이 넘어서 본 늦둥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아빠는 그 받은 사랑을 오래도록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을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빠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아빠는 그냥 아빠인 줄 알았다.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빠인 줄만 알았다. 아빠는 아빠의 엄마도 아빠도 그리워하는 줄 몰랐다. 언제나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어 주는 우리 아빠 모습에 아빠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빠도 힘들면 부르면서 안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난 이제 알게 되었다.

너무 늦게 안 아빠의 그리움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부터는 아빠의 그리움이 혼자만의 상처가 되지 않게 아빠에게 내 작은 어깨를 아빠가 기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겠다. 아빠가 맞이하는 어버이날이 반쪽이 되지 않게 내가 아빠의 비타민이 되어드려야겠다.

이번 주말,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카네이션을 들고 산소에 가신다고 한다. 아빠가 맞이하는 아빠의 어버이날, 내가 아빠의 외로움을 함께 한다면 아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어버이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예시원 시집

브라보 유어 라이프

세 개 공장을 통합하는데 십년이 걸렸다
사람을 비빔밥 만들어 비비고
짬뽕 잡탕 문화를 만드는데 딱 십년,
산전수전 공중전, 꿈속의 전투까지
정신력으로 버텼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너는 나를 살리고 나는 너를 살렸다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사람이라던가
앞에 앉은 사내의 얼굴에 노을이 진다
- 「브라보 유어 라이프」 중에서



그의 시에서는 셸러리맨의 애환이 엿보이며 자기정체성을 찾아 해매는 끝없는 방황과 만나게 된다. 이는 어쩌면 시인이 걸어 가야하는 필연의 길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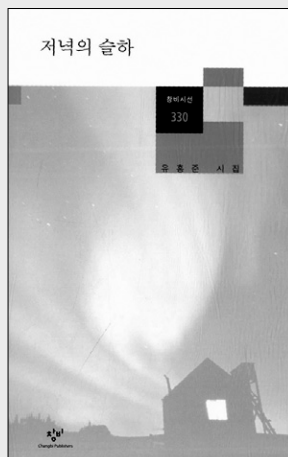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필연 앞에서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긍정적인 관계설정을 통하여 삶을 찬미하는 예시인의 시선 속에 비치는 '노을'은 도교적이며 선적인 느낌마저 든다.

그의 시에서 번득이는 해학과 역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구조적인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어쩌면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진한 패이소스가 아닐까 한다.

시 한 줄

유홍준 시집

저녁의 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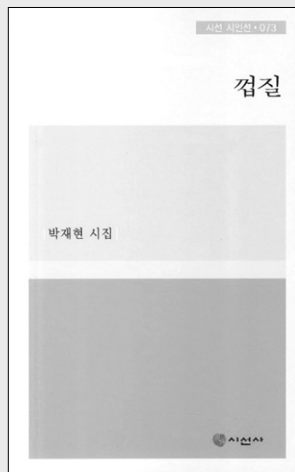
유홍준의 시는 '옆'에 있다. 얼마쯤 삐딱하게 한쪽으로 비껴서 있는 그의 포즈는 정면과 후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옆을 사유한다. 뻗어가는 직선을 부정하면서도 슬쩍 구부려 끌어안을 줄 아는 것이 옆이다. 옆은 저울 눈금을 뒤흔들어 “두근 반 세근 반”의 가슴 두근거리는 떨림을 영원히 죽지 않는 무게로서 살아내고자 한다. 허나 인공수정을 당하는 소의 저 멍한 눈망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분절음들로 가득 찬 폐쇄병동의 고통을 어찌할 것인가. 도축장에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죽음의 냄새, 성대가 잘려나간 채 석양을 바라보는 개의 그 처연한 저녁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한국 시에서 보기 드문 천치와 무용의 미학이 탄생한다. “비를 뒤덮인 옆구리로 살고” “죽어서도 제 옆구리를 먹이는” 물고기들의 후예로서 그는 “돌을 던져도 그저/빙그레 웃기만 하는 저수지”를 닮고자 하는가 하면, 연잎 위에 어떻게 하면 아기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몽상을 방법적으로 전경화한다. 그를 통해 쓸모만을 향해 질주하는 세계의 불모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것이다. 타다닥 타다다다 유홍준의 시는 버림받은 것들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참새의 부리를 닮아 이미지도 리듬도 모두 경쾌하다. 하지만 속으로 그 부리는 얼마나 부르짖을 것인가. ‘옆’에 두고 오래 손때를 묻히고 싶은 시집이다.

- 손택수(시인)

창비

박재현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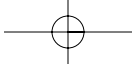
껍질



박재현의 시들에는 고졸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아름다움은 언뜻 질박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의 이런 시의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마음, 즉 모든 존재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과 함께 한다. 말하자면 “운동장가에서 환히 웃는 벗나무”, “다른 밭으로 떠나보내는/어린 나무”, “촉수 끝에 등불을 달고 서 있는”, “배롱나무”, “쪽마루 끝에 앉아 뭇가를 생각”하는 “햇살” 등의 입장과 시각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박재현의 시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실은 그가 자연의 모든 존재와 사물들에 정성을 다하는 경인敬人, 경물敬物, 경천敬天의 사상을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정한 정도의 정신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 그의 시에 드러나 있는 이런 마음이다.

- 이은봉(시인, 광주대 문창과 교수, 한국작가회의의 사무총장)

시 선 사



경남작가 | 2012 제21호

펴낸날 | 2012년 6월 30일

발행인 | 이한걸

편집위원장 | 노창재

편집위원 | 박종국 박현숙 하아무 김병우

(사) 경남작가회의

664-801 경남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170

전화 055-854-7648 / 011-854-2296

홈페이지 <http://www.gnja.or.kr>

전자우편 bugssa@hanmail.net

펴낸곳 | 도서출판 두엄

펴낸이 | 나문석

700-44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2-7

전화 053 423 2214

팩스 053 423 8957

홈페이지 www.dueum.co.kr

전자우편 dueum@hanmail.net

등록번호 제03-03-503호

값 9,000원

ISSN 1975-5090

* 이 책은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출판되었습니다

